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고려 충렬왕대 개경의 재건과 十字街 중심의 공간적 재편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유빈

고려 충렬왕대 개경의 재건과 十字街 중심의 공간적 재편

지도교수 정 요 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유 빈

오유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몽골과의 전쟁으로 소실된 개경 재건이 본격화된 고려 충렬왕대 十字街를 중심으로 공간적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본 것이다.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은 의례 공간으로 축소되어 가는 한편, 십자가 일대는 새로운 고려 왕실의 중심 거주공간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십자가 일대는 번화가의 위상을 넘어 개경 내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고려 왕실의 주요 거주공간인 본궐은 황폐해졌다. 개경 환도 이후 이어진 열악한 재정적 상황은 100년간 이어진 무신집권기가 종식되고도 대대적인 본궐 복원을 지체시켰다. 본궐은 의례 행사를 위한 공간만이 활성화되는 한편, 국왕의 거주·정무공간은 일찍부터 개경의 중요한 상업공간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던 십자가 일대에 마련되었다. 시기적 부침은 있더라도 항상 정국운영의 중심에 있던 본궐은 점차 의례공간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갔다.

의례공간으로 축소된 본궐은 개경 재건이 본격화된 충렬왕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재위 전반 국왕의 주 거주처는 上王의 거주 궁궐이던 沙坂宮으로 이어지고, 고려에 下嫁한 齊國大長公主의 생활을 위한 수령궁(죽판궁)이 십자가 중심부에 상당한 규모로 증축되었다. 이로써 개경 환도 이래 본궐 바깥으로 이동한 고려 왕실의 중심 거주공간은 개경 중앙부로 굳어지게 되었고, 수령궁은 본궐을 대신해 외교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충렬왕 12년 수령궁에 大殿이 완공되는 시점과 맞물려 수령궁은 제국대장공주뿐 아니라 국왕의 거처가 되었다. 이제 수령궁은 군주의 일상적인 정무가 행해지는 공간의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대전이 '王宮正殿'의 기능까지 일부 흡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 공간은 본궐을 대신해 개경 내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갔다.

충렬왕은 수령궁을 중심 궁궐로 운영해나가면서, 私第와 寺院에 빈번히 移御하며 그곳을 보조적 통치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정국운영의 중심 공

간이 본궐 바깥에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관료 혹은 왕실 구성원의 사적 공간도 본격적으로 군주의 보조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주의 활동 반경과 그리 멀지 않은 개경 시내에 화려한 저택이 조영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

한편, 충렬왕대 개경 일대의 사원들은 기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와중에, 개경 중심부에 자리한 사원의 기능과 위상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원 황실을 위한 축성의식과 같은 정례적인 대규모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개경 중심부의 사원이 중요하게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개경은 고려 왕실의 주요 거주공간이 된 십자가를 중축으로 하여 변화를 맞이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높이 세워진 涼樓는 개경의 중심을 상징하였다.

고려국왕의 통치 활동공간이 십자가 일대로 집중되면서, 官府의 재편과 함께 주요 廳舍의 배치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본궐의 핵심 관부를 비롯한 近侍 기구는 기능상 국왕 편의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궐이 국왕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황성 안팎 관청거리의 청사들은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갔다. 반면, 이 무렵 중추적 관부들은 다시금 국왕 편의에 맞게 십자가 일대로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국왕 근거리에서 군주 통치를 보좌하는 侍奉기구와 신변을 보호하는 侍衛기구는 점차 비대해져 갔다.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이 궁성·황성 이중의 성곽 바깥에 마련된 상황에서 근시 기구의 확대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주요어: 개경, 충렬왕, 十字街 일대, 移御, 궁궐 운영, 官府 배치, 도시 재편

학번: 2020-21443

목 차

머리말 ····· 1

一. 개경환도 직후 본궐의 의례공간화 ····· 4

二. 十字街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국왕의 활동 양상 ····· 15

1. 壽寧宮 중심의 궁궐 운영 ····· 15
2. 국왕의 관료 私第와 寺院 移御 ····· 30

三. 주요 官府의 十字街 일대 배치 ····· 43

맺음말 ····· 61

참고문헌 ····· 63

표 목 차

[표 1] 개경환도 직후 원종대 본궐 설행 행사 ····· 7
[표 2] 충렬왕대 본궐 설행 행사 ····· 15
[표 3] 충렬왕대 궁궐별 국왕 거주 기간 ····· 19
[표 4] 개경환도 이후~충렬왕대 외교 행사 장소 ····· 25
[표 5] 충렬왕대 私第별 국왕 거주 기간 ····· 31
[표 6] 충렬왕대 寺院·官府별 국왕 거주 기간 ····· 32
[표 7] 충렬왕대 私第 移御 일람 ····· 35

그 림 목 차

[그림 1] 원종대 거주 궁궐 위치 ····· 10
[그림 2] 무신집권기 주요 私第 위치 ····· 12
[그림 3] 충렬왕대 개경 내 국왕 거처 분포지도 ····· 38
[그림 4] 江都 이전 주요 官府 배치도 ····· 44
[그림 5] 충렬왕대 주요 官府 배치도 ····· 56
[그림 6] 충렬왕대 개경 都內 지도 ····· 60

머리말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本闕[1]은 고려 왕실의 주요 거주공간이자, 왕실 영위를 위한 의례 설행 공간이며, 국왕의 정무 공간이었다. 그러나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다. 고려 수도 개경은 몽골[2]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졌으며, 본궐의 宮室은 물론 官司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100년 만에 무신집권기를 종식하고 마침내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졌지만, 열악한 재정적 상황은 본궐의 복원을 지체시켰다. 본격적으로 개경 재건 사업이 시작된 충렬왕대에도 본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고려 조정은 본궐 복원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儀式 행사가 거행될 때를 제외하고 왕이 실질적으로 본궐에 거주하며 정무를 본 흔적도 찾기 어렵다. 환도 이후 본궐은 군주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개경 내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이라는 위상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이에 그간 개경의 연구성과는 본궐 기능이 활성화되었던 고려전기에 주로 집중되어왔다.[3] 개경 환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의 압력에 따라 국왕권이 위축되어 본궐이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4] 조금 더 분석적인 연구에서는 환도 이후 본궐보다

---

1) 개경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대궐에는 이름이 없고, 本闕·大闕·大內·禁中·紫城·禁城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송악산 대궐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본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2) 근래에 1271년 제정된 몽골의 '大元'이라는 국호는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의 한자식 번역 표기일 뿐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251~253쪽; 김호동, 2002 〈몽골제국사 연구와 『집사』〉 《경북사학》 25)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도 1271년 이전에는 '蒙古'로, 그 이후에는 '元'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1271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몽골'로 표기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는 데에는 몽골과 원 용어를 혼용하고자 한다. 유목사회의 성격으로부터 이어져 '元朝' 뿐 아니라 다른 칸국[Khanate]의 특성을 아우르는 성격을 서술하는 경우, 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몽골' 국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3) 본 논문은 개경 환도 이후의 개경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이전 시기 연구성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개경사 연구의 종합적 동향에 대해서는 박종진, 1999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 《역사와현실》 34; 2010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2(2000~2009)〉 《역사와현실》 75 참고.

4) 김동욱, 1998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건축역사연구》 15, 11-14쪽. 장지연, 2002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궁궐과 관청〉 《고려의 황도 개경》, 창

離宮(別宮)의 비중이 커졌음에 주목하고,[5] 본궐은 의례가 중심이 되는 한편 이궁은 연회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여러 이궁의 건설과 철거 양상이 원 복속기 上王의 정치 운영을 부정하는 정치형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6]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 궁궐에서 거행된 의례·연회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환도 이후 군신 간 행해지는 구체적인 정무 활동공간에 대한 象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원 복속기 내내 고려 조정이 끝내 본궐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못한다. 개경 환도 이후로도 개경은 약 120년 동안 고려의 수도로서 기능하였다. 그런데도 본궐의 시설이 대부분 복원되지 않았다면, 이는 한편으로 본궐을 대체할 만한 공간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때 본궐의 범위는 국왕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정무를 보는 궁성 영역뿐 아니라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官府 청사와 국왕 가까이에서 侍奉·侍衛 하는 근시 기구를 아우른다. 따라서 개경 환도 이후 본궐 기능이 축소되었다면, 개별 궁궐뿐 아니라 국왕 통치를 보좌하는 각종 기구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즉, 군주 통치를 보좌하는 주요 관부를 포함한 각종 기구가 이 무렵 국왕의 거주공간 및 통치 활동공간의 변화와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역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왕의 주요 거주처와 그곳에서의 거주 기간 파악이다. 국왕은 모든 국가 사안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그 때문에 국왕 거처는 군신 간 만나는 장소를 결정한다. 즉, 국왕 거처는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을 결정한다. 의례·연회 장소는 국왕이 거주하며 정사를 보는 장소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常參과

작과비평사, 61-63쪽; 정은정, 2009 〈고려시대 開京의 도시변화와 京畿制의 추이〉,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32-233쪽; 홍영의, 2010 앞의 논문 289-335쪽.

5) 김창현은 江都 이전 시기를 '御闕의 시대', 이후를 별궁의 시대로 구분하였으며(김창현, 1999 〈고려 開京의 궁궐〉 《사학연구》 57, 57-68쪽), 장지연·홍영의는 고려후기의 궁궐 운용방식으로서 '본궐－이궁'체제를 제기하였다. (장지연, 2006 앞의 논문, 222-229쪽)

6) 장지연, 2006 앞의 논문, 230-240쪽.

같이 일상적 국정 회의가 이루어진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실질적인 거처 파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군주의 거처와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주요 관부 및 근시 기구의 위치 파악이다.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이 더는 국왕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면, 국왕 통치를 보좌하는 각종 기구가 본궐에 재건될 이유는 사실상 없다. 국왕의 주요 거처 공간의 변화 양상과 연동되어 이루어진 관사의 배치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환도 이후 국왕의 거주공간 변화에 따라 변화해간 개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왕의 행방을 가급적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高麗史》 〈世家〉를 국왕 거처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고려 개경은 현재 북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한계로 국왕의 거주공간 및 주요 관사들의 위치 파악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그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인물의 동선을 통한 간접적인 추정과 후기의 기록이라도 그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후대의 기록이지만 개경의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松京廣攷》·《中京誌》 등 지리지를 참고하였다. 고려전기 본궐의 구조와 비교를 위해서는 宋 使臣 徐兢이 기술한 《宣和奉使高麗圖經》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인 QGIS(3.16)를 활용하였다.

충렬왕대 개경 재편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1장에서는 개경 환도 직후 본궐이 의례 공간으로 축소된 배경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十字街를 중심으로 국왕의 거주 및 통치 활동공간이 고착되어감에 따라, 개경 중심부에 소재한 관료 私第와 寺院이 적극적으로 보조공간으로 활용되어갔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본궐이 국왕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주요 관부 및 근시 기구의 배치 구조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이로써 개경 환도 이후 십자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적 재편이 이루어진 개경의 한 단면을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一. 개경 환도 직후 本闕의 의례공간화

충렬왕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개경 재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도 직후 개경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몽골과 관계가 진전되면서 개경으로 환도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이자, 충렬왕대 개경 재편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인 원종대의 상황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0년간 이어진 무신집권기를 종식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직후 본궐의 기능이 의례 공간으로 축소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본궐은 그 宮室과 官司가 모두 자갈 더미와 풀숲의 빈터가 되어버렸고, 그 정도는 禁內官을 포함한 宮城 안의 관청은 물론 廣化門 바깥의 관청 거리까지 모두 소실되는 규모였다.[7] 몽골군이 康安殿을 약탈할 정도로 본궐은 안쪽 깊이 훼손되었다.[8] 몽골과의 장기적인 전쟁은 고종 40년(1253) 고종이 安慶公 淐을 몽골에 보내 항복을 표시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9] 몽골의 계속되는 出陸還都 요구에도 환도를 꺼리던 무신 세력이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기에 환도를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10] 이후 즉위한 원종은 몽골과 적극적으로 강화를 추진하면서 출륙 의지를 보여주었다. 원종 9년(1268)에는 몽골의 계속되는 출륙환도와 6事 이행 촉구에 따라, 그해 3월 出排都監이 개경에 설치되었다.[11] 이로써 환도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경으로의 환도를 위한 준비는 순탄하지 못했다. 몽골과의 강화를 불안하게 여긴 林衍 정권은 太子 甚(이후 충렬왕)이 원종을 대신하여 쿠빌라이를 만나러 간 틈을 타 원종 폐위를 도모하였다.[12] 이로써 안경공 창이 옹립되고 임연은 스스로 敎定別監에 올라 다시금 무신정권을

---

7) 《東文選》 권70, 禁內廳事重興記; 《東文選》 권68, 軍簿司重新廳事記.
8)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12월.
9) 《高麗史》 권24, 高宗 40년 12월 壬申.
10) 李益柱, 1996 〈高麗 對蒙抗爭期 講和論의 硏究〉 《歷史學報》 151, 11쪽,
11) 《高麗史》 권26, 元宗 9년 3월 庚申.
12) 李益柱, 1996 〈高麗·元 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6~47쪽.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에 환도 준비는 다시금 중단되었다.

당시 몽골에 입조해 있던 태자(충렬왕)가 이 사실을 몽골 황제에게 알리는 등 외교활동을 하면서 원종은 머지않아 복위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연의 원종 폐위 시도는 오히려 무신정권의 기반을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3] 이어서 원종 11년(1270) 5월 임연이 죽고, 집정을 계승한 林惟茂까지 洪文係(洪奎), 宋松禮 등에 의해 제거되면서 무신정권은 완전히 종식되었다.[14] 이로써 원종은 서둘러 환도를 이행하였다.[15]

이처럼 환도 이전 개경 환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었다. 원종 9년(1268) 3월 출배도감이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환도가 이행되기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있었을 뿐이다. 그마저 급박한 대내외적 정세가 이어지면서 환도 준비는 계속해서 지체되었다. 당시 몽골에서는 복속의 의미로 6事 이행을 계속 요구하기도 하였으니 개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종은 개경 환도 직후 본궐이 아닌 沙坂宮에 거처를 정하였고,[17] 이후 薨逝할 때까지도 궐 밖 생활을 하였다.[18] 원종이 본궐로 거처를 두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한편, 본궐에 행사가 있을 때면 동왕이 신료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행차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례로 원종 11년(1270) 本闕에서 藏經道場을 열리자 왕은 法駕를 타고 본궐로 행차했는데, 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으며 樂官도 갖추지 못하고 文武官 중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19]

한편, 개경 환도 이후 원종이 거처로 삼은 궁으로는 沙坂宮·男山宮(南山宮)·堤上宮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궁들에 대한 기록은 이전 시기 거의

---

13) 《高麗史節要》 권19, 원종 10년 8월; 邊太燮,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427쪽; 이익주, 1987,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1-12쪽.

14) 《高麗史》권26, 元宗 11년 5월 癸丑.

15) 《高麗史》 권26, 元宗 11년 5월 丙午.

16) 박종진, 1983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 54-61쪽.

17) 《高麗史》 권27, 元宗 11년 5월 丙寅.

18) 《高麗史》 권27 元宗 12년 3월 甲戌; 元宗 13년 10월 甲午; 元宗 15년 6월 癸亥.

19) 《高麗史》 권26, 원종 11년 9월 癸亥.

찾아지지 않는다. 사판궁과 남산궁에 대한 기록은 원종이 移御하기 이전까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제상궁은 명종 13년 왕이 太后를 純陵에 장사지내고 이곳으로 이어했다는 기록 1회만이 확인될 뿐이다.[20] 개별적인 건설과정에 관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니, 이는 원종 9년 출배도감 설치 후 약 1년에 걸쳐 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경 내 비교적 건재했던 건물을 수리하여 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본궐 중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궁궐을 새로이 축조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한편, 왕실 구성원의 별궁 혹은 고관 私邸가 주인을 잃으면 일반적으로 국왕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21]

100년 만에 무신집권기를 끝내고 약 40년 만에 개경 환도가 이행되었음에도 원종이 본궐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재정적 상황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개경 환도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려 조정은 여전히 몽골 조정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간섭과 수탈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22] 특히 당시 원에서는 大都 건설에 착수하고 있었고, 이에 원 조정은 고려에게 궁실 재목까지 요구하였다.[23] 이와 함께 고려에 파견되었던 達魯花赤, 삼별초 난 진압 및 일본정벌 준비를 위해 주둔했던 원 군대를 포함한 다양한 원 세력이 고려에 들어와 있었다.[24]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왕실을 상징하는 본궐을 대대적으로 중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황폐해진 본궐을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본궐 밖에 거처를 둔 것은 사실 그리 의아한 일은 아니다. 강도 이전에도 본궐에는 수차례 화재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고려국왕들은 궁궐이 보수될 때까지 궐 밖 이궁에 머무르곤 했다. 현종대 거란의 침입, 인종대 이자겸의 난, 명종대 무신란으로 인해 본궐이 소실될 때마다 고려국왕들은 본궐이 중수될 때까지 수창궁·延慶宮 등 궐밖에 거처하며 일상적인 정무를 보았다.

---

20) 《高麗史》 권20, 明宗 13년 윤11월 甲寅.
21) 《宣和奉使高麗圖經》 권6, 宮殿 別宮.
22)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2월 庚子; 박종진 1983 앞의 논문, 61쪽.
23) 《高麗史》 권27, 원종 13년 12월 壬辰.
24) 《元史》 권7, 世祖 至元 7년 2월 乙未; 11월 丁巳; 《高麗史》 권27, 원종 12년 3월 丙寅.

그렇지만 수차례의 화재에도 국가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국왕의 거처이자 정국운영의 중심인 본궐의 복원은 늘 중요한 과제였다. 인종은 김부식의 토벌 작전의 승리로 묘청의 난이 일단락되자마자 곧바로 대궐 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25] 무신란 이후 명종은 본궐에 거처하기를 꺼렸음에도 명종 9년(1179) 본궐의 복구사업이 이루어졌다.[26]

원종 역시 본궐 복구에 완전히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보듯, 원종은 중요한 의례 행사는 대부분 본궐에서 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消災道場이나 매년 2월 보름을 전후하여 열리는 上元燃燈會는 원종이 홍서할 때까지 본궐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의례 행사가 거행되는 궁성의 일부 구역은 복원되었을 것이다.

[표 1] 개경 환도 직후 원종대 본궐 설행 행사

장소	행사내용	횟수	왕력
본궐	장경도량	1	11년
	백좌도장	1	11년
	소재도량	3	12년, 13년, 14년
	연등회	3	12년, 13년, 14년
	초제	4	12년, 13년, 14년, 15년
	금경도량	1	13년

《高麗史》 世家 기준 작성

그러나 이전 시기와 달리 환도 이후 본궐의 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정 회의·외교 행사 등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이었던 궁성의 전각인 宣慶殿과 大觀殿 등에 대한 기록도 더는 확인되지 않는다. 군신 간 국정 회의는 물론 외교 행사가 본궐 전각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환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강화로 천도하기 직전까지도 재추들은 선경전에서 모여 몽골군을 막을

25) 《高麗史》 권17, 仁宗 17년 2월 戊午.
26) 《高麗史》 권20, 明宗 9년 3월 己未.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관전은 몽골 사신과 관련한 외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27] 원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詔使의 왕래가 더욱 빈번해졌을뿐더러, 고려에 주재하는 원 세력이 많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본궐의 전각에서 외교 행사가 행해지는 모습을 단지 기록의 누락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보다 당시의 재정적 상황이나 고려말까지 본궐의 전각에서 구체적인 정무 활동이 행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환도 직후 본궐은 의례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이 복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8] 당시의 재정적 상황과 맞물려 국왕의 일상적인 국정 회의 및 외교행사 거행 장소로서 본궐의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종이 환도 이후 자리 잡은 공간은 어디일까? 본궐이 국왕 정무 공간으로서 기능이 축소되었다면, 전쟁으로 황폐해진 개경은 국왕 거처를 중심으로 정국운영의 공간이 형성되어갔을 것이다. 국왕 거처는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종이 본궐을 꺼려 수창궁에 주로 거처할 때, 內侍院·武庫·知奏事房·重房 등 국왕을 보좌하는 近侍 기구가 수반되었을 뿐 아니라, 추밀원과 중서성 등 핵심 관부까지 수창궁에 별도로 설치되었다.[29] 모든 국가 사안의 최고 결정 권한이 있는 국왕을 중심으로 왕명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이동하는 일은, 왕조 시대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즉, 국왕의 거처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충렬왕 즉위년 '제상궁중서성'을 史館으로 삼았다는 기사가 주목된다.[30] 이는 이미 원종대 제상궁에 中書省이 배치되었음을 시사

---

27)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5월 辛丑; 권22 고종 6년 1월 辛卯; 고종 8년 8월 甲子; 9월 丁亥; 10월 庚申; 고종 18년 12월 癸丑.

28) 김창현은 개경 환도 이후 궁궐이 중수될 때, 康安殿·儀鳳樓·毬庭·景靈殿 등은 복구되었으나, 宣慶殿과 大觀殿이 복구되지 못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이념》, 신서원, 205쪽) 고려 개경 궁궐의 활용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는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60-122쪽 참고.

29) 수창궁의 전각과 구조 및 거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별궁〉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222-230쪽 참고.

30)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9월 戊戌. "以堤上宮中書省爲史館."

한다. 제상궁은 원종이 이어한 동왕 13년(1272) 무렵부터 百座道場·金經道場 등 중요한 도량이 거행되며, 副達魯花赤 焦天翼 송별 잔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正宮의 역할을 하였다.[31] 그에 따라 핵심 관부인 중서성이 국왕 거처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종대 수창궁 사례를 미루어보면, 제상궁에 중서성뿐 아니라 국왕 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시봉기구가 함께 설치되었을 것이다.

원종이 거처로 삼은 궁은 그 이름으로 대략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사판궁은 沙峴 인근[32], 남산궁은 子男山, 제상궁은 堤上坊의 지명을 따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사판궁은 수창궁에 머물렀던 이의민 세력이 십자가에 주둔한 최충헌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넘은 고개가 沙嶺 곧 사현이었던 사실에서,[33] 수창궁과 十字街 사이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제상궁과 남산궁은 같은 궁이거나 별개의 궁이더라도 인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서는 원종 15년 6월 癸亥일(18일)에 원종이 제상궁에서 훙서하자 당시 원에 入朝하고 있던 충렬왕이 고려로 귀국해 8월 戊辰일(25일)에 제상궁에 나아가 빈전을 알현했다고 하는데, 같은 일을 李承休의 《賓王錄》에서는 충렬왕이 남산궁에 入御하여 肅拜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이다.[34] 즉, 제상궁과 남산궁은 같은 궁이었거나, 혹은 같은 공간의 별채였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남산궁·제상궁은 高達坂 부근의 제상방[35]이면서 자남산 인근에 있었던 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지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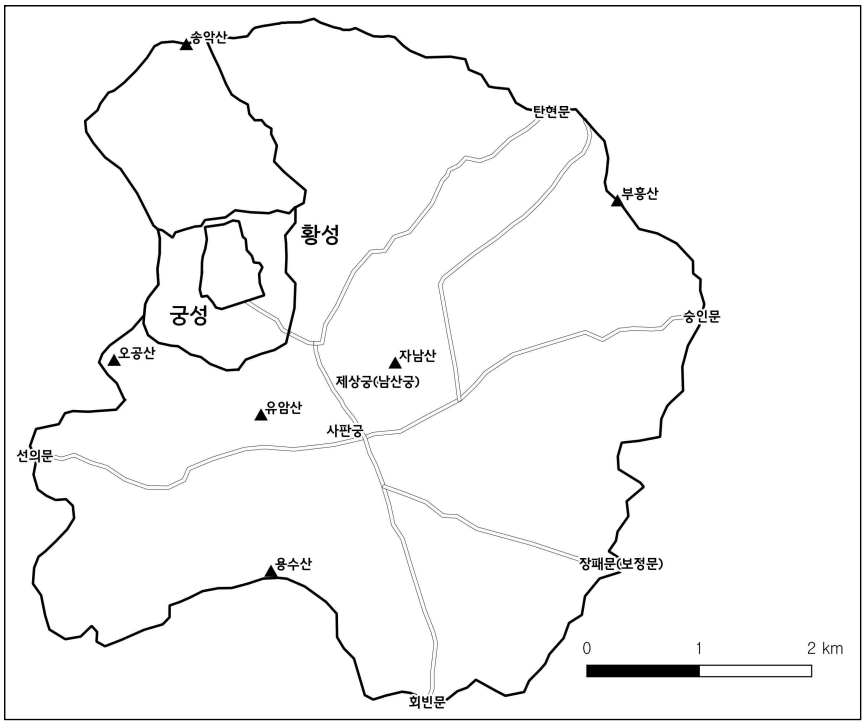
31) 《高麗史》 권27, 원종 13년 10월 甲午·庚戌; 원종 14년 8월 甲子.

32) 《高麗史》 권34, 충숙왕 6년 10월 壬戌; 권53, 志7 五行1 火 충정왕 3년 戊子.

33)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高裕燮은 사현궁은 수창궁 서문과 맞닿아 있고, 유암산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유섭, 2017 《松都의 古蹟》, 열화당, 151·167쪽)

34) 《高麗史》 권27, 원종 15년 6월 癸亥; 권28, 충렬왕 즉위년 8월; 《元史》 권8, 本紀8 世祖5 至元 11년(1274) 7월; 《動安居士行錄》 권4, 賓王錄; 원종이 환도 후 거주 별궁으로 삼은 남산궁과 제상궁이 같은 궁일 것이라는 주장은 김창현이 언급한 바 있다. (김창현, 2017 《고려 도읍과 동아시아 도읍의 비교연구》, 새문사, 356-356쪽)

35)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王府 開城府 현종 15년; 개경의 五部方里의 영역에 대해서는 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方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38, 47-54쪽.



[그림 1] 원종대 거주 궁궐 위치36)

보이는 바와 같이, 환도 이후 원종이 거처로 삼은 궁은 남대가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공간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충렬왕대 개경 재편의 토대가 되니, 고려에서 십자가 일대가 갖는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십자가 일대는 일찍이 개경의 번화가이자, 본궐의 보조적 통치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개경은 지리적 특성상 사방이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일 뿐 아니라 내부에도 작은 산과 언덕이 많아 실질적 거주 가능 지역은 많지 않다. 그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6) [그림1-1]은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개경 성곽 윤곽은 〈개경지리정보〉(국사편찬위원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궁성은 우성훈·이상해(2006, 〈고려정궁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47)의 연구성과를, 황성과 나성은 북한학자 전룡철(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력사과학》 2·3) 및 북한과 프랑스가 공동 발굴 조사한 자료집(2014,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 전시회》)에서 제시된 성과를 절충하여 구현한 것이다. 이하 지도의 개경 성곽은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뻗은 大路 인근은 일찍이 民家가 밀집하며 주요 상업공간을 형성하였다. 특히 십자가에서 본궐의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남대가는 개경의 대표적인 시장인 市廛 행랑이 위치한 공간이었다.[37] 자남산 인근에는 乳岩 아래의 油市, 십자가 중심부에는 楮市 또는 紙廛이라고 불리는 시전이 있었다.[38] 그리고 이들을 관장하는 京市署가 십자가 중심부에 있었다.

동시에 십자가는 광화문 바깥 관청거리와 개경 시내를 이어주는 남대가와 나성의 서문인 宣義門과 동문인 崇仁門으로 이어진 동서 대로의 유일한 교차지점이다.[39] 즉, 십자가 일대는 일찍이 개경 상업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수창궁이 일찍부터 그 인근에 자리한 것이다.

무신집권기를 거치며 십자가 일대는 더욱 정국운영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무신집권기에 이르면 대규모의 사저 조영 및 별궁 운영의 주체가 국왕에서 집권 무신으로 변한다. 그 규모는 때론 개경에서 하나의 坊을 두루 미칠 정도였으며, 그들 사저 안에 설치한 거대 樓觀은 때론 수백~수천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40]

고려전기 이래 관료들은 개경 곳곳에 거처를 두었겠지만, 국왕의 활동 반경과 멀지 않은 곳에 고관 마을이 형성되곤 했다. 궁성 남쪽인 政丞洞이 대표적이며, 의종대에는 국왕 측근 사저가 주로 황성 동쪽인 闕東에 분포해있었다.[41] 그러나 집권 무신의 사저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십자가 인근에 주로 분포한다. 이규보가 묘사하듯, 당시 최충헌 사제가 위치한 자남산 인근에는 수많은 저택이 즐비해 있었다.[42] 최씨 집권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관료 생활을 이어간 그 역시 십자가 인근 앵계리에 사제

---

37)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 城邑, 國城; 徐聖鎬, 1994 〈韓國中世의 都市와 社會〉 《東洋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03쪽.

38) 서성호,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38, 94-95쪽; 우성훈, 2010 〈고려시대 개경 시장의 도시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6(5), 180~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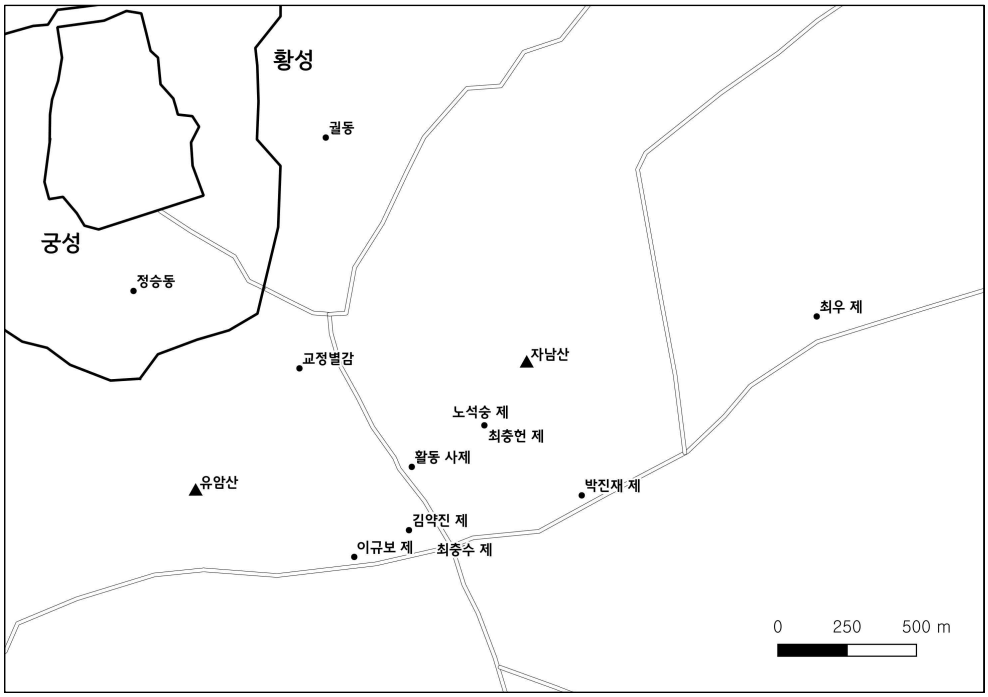
39) 정요근, 2002 〈모든 길은 개경으로〉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143~145쪽.

40) 《高麗史》 권100, 열전13, 崔世輔;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3년 10월.

41) 侍中 王冲, 前 參政 金正純, 平章事 庾弼, 樞密院副使 金巨公의 私邸는 모두 闕東에 위치하였다. (《高麗史》 권80, 의종 11년 4월 丙申)

42) 《東文選》 권66, 記晉康侯茅亭記.

를 두었다.[43] 무신 실력자들은 그들 사저와 본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堤坊과 같은 기반 시설을 개인 차원에서 정비하기도 하였다.[44] 무신집권기는 우연치않게 개경의 都心이 십자가 일대까지 크게 확장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림 2] 무신집권기 주요 私第 위치[45]

최씨 정권의 등장은 개경의 외형적 경관 변화에서 더 나아가 그들 사제를 본궐과 대등할 정도로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게 했다. 정권을 잡은 최충헌과 최충수 형제는 명종을 수창궁에서 본궐로 옮기는 한편, 자신들의 사제 규모를 禁掖, 즉 궁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조영하였다.[46] 이와 함께 자신의 사제에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뿐 아니라 잦은

43) 《東國李相國全集》 권3, 古律詩.
44) 일례로 李義旼은 그의 사제가 위치한 駱駝橋부터 烏川의 猪橋까지 제방을 쌓아 新道를 만들어 南大街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高麗史》 권128, 열전41, 李義旼)
45) 무신집권기 집권 무신들의 사저 위치에 관해서는 김창현(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창현, 2017 《고려후기 정치사》, 경인문화사, 135-136쪽)

연회를 개최함으로써 諸王·宰樞·承宣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그곳으로 모여들게 하였다.[47] 나아가 興寧府와 晉陽府, 政房과 書房, 都房과 馬別抄 등 관사마저 최씨 사제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48] 최씨정권의 서무를 담당하는 敎定都監은 迎恩館 즉 興國寺 인근에 설치되었다.[49] 국정을 장악한 최씨 정권을 보좌하는 정치기구가 본궐 바깥으로 배치되면서 개경의 시가지는 고려 왕실과 별도로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50]

이로써 개경은 본궐뿐 아니라 그 바깥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공간까지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이 크게 확대된 형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강화 천도가 이행되기까지 약 60년 동안 유지되었다. 즉, 강도 이전 십자가 일대는 정국운영 공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십자가 일대는 일찍부터 개경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환도 직후 본궐의 궁실과 관사는 모두 소실되고, 衣冠과 官廨 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던 상황에서,[51] 원종이 십자가 일대에 자리를 잡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52] 그러나 이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례 공간을 제외하고 본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실 주도하에 궐 바깥에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이 마련된 모습은 이전과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

46) 《高麗史》 권129, 열전42, 崔忠獻; 《東國李相國集》 권25, 又大樓記; 《東國李相國集》 권24, 崔承制十字閣記; 《高麗史》 권129, 열전42, 崔怡.

47) 「崔忠獻墓誌銘」·「崔竑墓誌銘」(김용선,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高麗史》 권129, 열전 권42, 崔怡.

48) 김창현, 2017 〈고려 무인정권기 집권자의 私第와 정치〉 《고려후기 정치사》, 景仁文化史, 134-172쪽 참고.

49) 《高麗史》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高麗圖經》에 따르면 영은관은 흥국사 남쪽 仁恩館과 나란히 있었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7, 館舍 客館)

50) 신종 5년 8월 경주의 민란에 대한 논의 (《高麗史節要》 권14, 신종 5년 8월; 《高麗史》 권21, 신종 5년 10월)와 고종 19년 몽골 방어와 강화 천도에 관한 논의(《高麗史》 권16 고종 19년 5월; 《高麗史節要》 권23 고종 19년 6월;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6월; 《高麗史節要》 권23 고종 19년 6월) 모두 본궐의 전각과 최씨 사저 각각에서 이루어졌다.

51) 《高麗史》 권26, 원종 11년 6월 乙亥.

52) 원종이 거처로 삼은 궁과 집권 무신 사저의 위치가 대략 일치하니, 환도 직후 주인을 잃은 집권 무신의 사저를 수리하여 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찍부터 십자가 일대가 아무리 중요한 위상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본궐의 조정은 항상 정국운영의 중심에 있었다. 고려전기 이래 수차례 화재로 본궐이 소실되어 국왕이 궐 밖에 거처를 둘 때도 중요한 국가 행사는 대부분 본궐에서 행해졌다.[53] 무신 집정자들이 그들 사저에 권력 기구를 설치할 때에도 신종은 대관전에 《書經》 〈無逸篇〉을 고쳐 쓰며 본궐이 정국운영의 중심에 있음을 표명하였으며,[54] 국정을 장악한 최씨 집권자들이 재추로서 참여한 국정 회의 역시 본궐의 전각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55] 최씨 사제가 정국운영 공간으로 부상한 때에도 국정 회의의 장소가 본궐 바깥으로 완전히 이전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국정 회의는 물론 외교행사 거행 장소는 본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전개가 원종 의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환도 직후 개경을 재건할 정도로 재정적 상황은 여의치 않았으며, 고려에 주재하는 원 출신 관원들은 국왕권을 더욱 위축시켰다. 이에 더해 원종은 환도 이후 4년 만에 훙서하였다. 원종에겐 본궐을 본격적으로 재건할 재정적 여유는 물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환도 직후 정국운영 공간은 본궐 바깥에 형성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원 복속기에 본궐이 의례공간으로 축소되는 토대가 되었다.

요컨대 십자가 일대는 일찍부터 개경의 중요한 상업공간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이곳은 고려 왕실의 보조적 통치공간으로서 기능하였고, 무신집권기에 이르러서는 집권 무신의 주요한 거점이 되었다. 개경 환도 직후 대대적인 본궐 중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종은 십자가 일대를 거처로 삼으며 정국운영을 이끌어갔다. 그러한 와중에 본궐은 점차 의례 공간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갔다. 본격적으로 개경을 복원하는 과제는 충렬왕에게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십자가 일대는 본궐을 대체하는 정국운영 중심 공간으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

53) 김창현, 1999 앞의 논문, 57-60쪽.
54) 《高麗史》 권21, 新宗 2년 5월 戊戌.
55) 박재우, 2022 〈고려 최씨정권의 私第 경영과 성격〉《歷史學報》 253, 92-100쪽.

二. 十字街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국왕의 활동 양상

1. 壽寧宮 중심의 궁궐 운영

개경 환도 직후 원종대 본궐이 의례 공간으로 축소된 양상은 충렬왕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본궐은 여전히 국정 회의와 같은 구체적인 정무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주로 의례 관련 행사 장소로 등장한다.

[표 2] 충렬왕대 본궐 설행 행사

장소	행사내용	횟수	왕력
본궐 (구체적인 장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재도량	2	3년, 9년
	장경도량	2	2년, 6년
	관정도량	1	즉위년
	팔관회	2	즉위년, 1년
	인왕도량	1	2년
	백좌법석	1	8년
	초제	7	즉위년～9년
	행차	1	2년
의봉루	팔관회	1	즉위년, 1년
	반야도량	1	2년
구정	반승	2	2년
강안전	즉위	1	즉위년
	장경도량	1	2년
	초제	11	2～21년
	소재도량	2	3년
	연등회[56]	15	재위 전반
	영보도량	3	12년, 14년, 19년
	대장경 전독	1	21년
경령전	謁(告卽位)	1	즉위년
	섭사	1	1년
	원종 부묘	1	2년

《고려사》 世家 기준으로 작성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충렬왕대에는 의봉루와 구정과 같이 궁성 영역을 대표하는 시설물들이 추가로 확인된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도량·법석·반승을 비롯한 불교 행사와 초제 등 주로 의례와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조회·국정회의·외교 행사 등 정무 행위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도 이후 유일하게 확인되는 본궐의 전각인 강안전마저 국정 논의보다는 도량이나 초제 등 의식 행사에 대한 기록만이 전해질 뿐이다. 본래 宣慶殿이나 乾德殿 등의 정전에서 이루어지던 고유의 도량인 장경도량과 소재도량마저 강안전에서 거행되고 있다. 편전이었던 강안전이 본궐의 유일한 전각이 되면서,[57] 정전의 기능을 흡수해 의례 공간의 성격으로 변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되는 것은 충렬왕대 본궐에서 설행된 행사의 시기별 변화이다. 본궐에서의 행사는 주로 충렬왕 10년(1284) 이전에 집중된다. 특히 소재도량이나 장경도량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도량은 충렬왕 9년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보다 초제와 영보도량이 확인되는데, 그마저도 충렬왕 21년 이후론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종대 본궐 기능의 축소 양상이 충렬왕대에 더욱 심화해간 것이다.

이는 충렬왕이 본궐 중수에 큰 관심이 없던 사실과도 상통한다.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원으로부터 돌아와 康安殿 건물을 바라보며 "父王(忠烈王)께서 30여 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즐기던 무렵에 만약 이 궁전을 새롭게 하였다면 과인이 오늘날 걱정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58] 충렬왕의 즉위 의례가 거행된 장소였던 강안전 마저 충렬왕 재위 동안 중수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충렬왕대 본궐을 대신한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는 충렬왕의 실질적인 거처와 각 장소에 머무른 기간 파악이 요구된다. 강조하듯, 군신 간 국정 회의를 비롯한 국왕의 일상적인 정무

---

56) 충렬왕대 강안전 연등회의 횟수는 연등회 개최 횟수 즉 上元燃燈會(2월 보름) 날짜에 왕이 奉恩寺에 간 기록으로 추산하였다. 연등회가 열리면 小會 때는 강안전(중광전)에서 출발해 봉은사에 행차하고 그다음 날의 大會 때는 강안전(중광전)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이 관례다.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57) 김동욱, 1988 앞의 논문, 14쪽.

58) 《高麗史》 세가 권34, 충숙왕 원년 1월 乙未.

활동은 일반적으로 국왕 거처에서 이루어진다. 고려전기 이래 국왕이 어디에 있든 視事·視朝·聽政의 場은 왕이 머무는 곳에서 열렸으며,[59] 빈번한 국왕 移御로 왕의 거처가 계속 변화하는 고려후기에도 백관의 업무 보고는 물론 국정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변함없이 왕이 머무르는 곳이었다.[60] 왕조 시대 정국운영 공간은 국왕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국왕의 거처는 그 중심 공간을 결정한다. 국왕이 거하는 장소는 확인되어도 일정한 聽政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환도 이후의 상황에서,[61] 국왕의 거처는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다.

다행히 《高麗史》〈世家〉에서는 국왕의 행방을 가급적 빠짐없이 기록한다. 특히 행차하는 경우(幸·行幸·如)와 거처를 옮기는 경우(移御·入御·移幸·還御)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는 〈세가〉의 기재 방식은, 당시 국왕의 중심 거처 공간에 대한 단서를 준다.

이에 앞서 그 용례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고려사》에서는 고려국왕들이 궁궐을 벗어나는 행위를 '幸·行·如'와 결합하여 표현한다. '親行'은 주로 의례의 주체자로서 면모를 보이는 행차에 사용되고, '巡幸'은 주로 서경이나 남경 등의 행차에 주로 사용된다.[62] 한편 '如'의 경우, 떠나거나 혹은 떠나보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려에서 외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 항상 '如'로 기록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국왕의 행차 장소가 멀거나 혹은 긴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원 복속 이래 대규모 인원을 수반하는 원 입조 시 빠짐없이 '如元'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때로는 비교적 행차의 규모가 크거나 일정한 격식을 갖춘 때에도 '如'를 활용한다. 예컨대, 연등회와 같은 연례적 행사를 위해 奉恩寺에 행

59) 고려전기 이래 視事·視朝·聽政이 결합한 경연은 상시로 국왕이 머무는 공간 어디든 행해졌다. (정은정, 2021 〈고려 朝儀 구성과 정비〉《역사문화연구》80, 50-54쪽)

60) 《高麗史》 권33, 충선왕 복위년 11월 辛未; 권135, 列傳48, 우왕 10년 11월 甲子; 권136, 列傳48 우왕 9년 10월 丙戌; 列傳49 우왕 12년 1월.

61) 《高麗史》 권42, 공민왕 19년 5월 甲寅. 成准得還自京師, 帝賜璽書曰, "…有居而無聽政之所."

62) 전경숙, 2018 〈고려시대 국왕의 개경 절 行幸과 도성의 공간 활용〉《역사와 담론》85, 304-305쪽.

차할 때에도 대체로 '如奉恩寺'로 기록한다. 이처럼 '幸'·'如'는 행차의 성격에 따라 다소 용례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군주가 거처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군주의 거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移御'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거처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려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주의 행방을 중심적으로 서술하기에, 대체로 국왕의 거처가 옮겨졌음을 뜻한다. 즉, 국왕 행차의 경우와 달리 국왕 이어는 국왕의 주 거주처가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국왕 이어에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했는지 기록의 부재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왕의 행차 시에도 承宣·내시·환관 등 근시직은 물론 상당 규모의 大小 신료와 문신이 수반되곤 했으니,[63] 거처를 옮기는 경우는 더 큰 규모의 수행원이 수반되지 않았을까 싶다. 국왕의 거처 이동은 국정운영에 있어 정치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주의 거처가 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행차의 경우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는 〈세가〉의 기재 방식은 국왕의 거처와 그곳에서 거주한 기간을 나름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차의 경우가 국왕이 본래 거처로 돌아감을 전제로 한다면, 국왕의 직전 이어 장소와 이후의 이어 장소를 연결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표 3]은 《고려사》〈세가〉의 기재 방식을 기반으로 국왕이 거처한 궁궐별 추정 거주 기간을 파악한 것이다. 물론 《고려사》 자체가 갖는 불완전성으로 기록 누락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 기간의 정확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국왕의 행방만큼은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했던 《고려사》 기록의 특성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은 개경 환도 이후 국왕이 주로 머물며 정무를 본 공간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64]

---

63) 《高麗史》 권128 列傳41 反逆 鄭仲夫.

64) 거주 기간 파악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高麗史》 기사의 음력 날짜를 기반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려시대연력표》를 기반으로 음력 날짜로 환산한 것이다. 구체적인 국왕 거처와 거처 기간에 대해서는 [부표 1] 참고.

[표 3] 충렬왕대 궁궐별 국왕 거주 기간(추정 포함)

단위: 개월

왕력	본궐	사판궁	수령궁(죽판궁)	수강궁	제안공第(제안궁)	덕자궁	명순궁	백정궁	숙창원비第	홍비第	장봉신궁
즉위		1	α								
1		3	4								
2		12									
3	α	7									
4		4									
5	α	1		2							
6	1	7		α							
7		7		α							
8		5			2						
9					1						
10		α			1						
11					4						
12			10								
13	2		1								
14			8								
15											
16											
17											3
18			8								α
19			4								
20			12								
21			12								
22			8								
23											
24						8	1	2			
25			1					7			
26			1		4						
27				1	3						
28				2	6						
29			2		5						
30			8		4						
31			4	α					5	α	
32											
33									7		
34									3		
총기간	3	47	83	5	30	8	1	9	15	α	3

※ [표 3]은 충렬왕 재위 동안 移御한 장소와 그 거처 기간을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로 각 장소에 왕이 머무른 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표시하였다.

※ α는 일수를 정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중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단, 추정되는 α의 합이 30일이 넘어가는 경우 1개월로 간주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 충렬왕은 여러 궁궐을 운영했으며 때로는 왕실 구성원의 공간도 거처로 활용하였다. 그러한 와중에도 본궐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재위 34년 동안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본궐 거처가 너무 당연하여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충렬왕대에도 본궐에서 의례적·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질 때, 행사 참여를 위해 국왕이 그곳으로 행차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확인되기 때문이다.[65] 일례로 충렬왕은 팔관회 참여를 위해 본궐로 행차하면서 輦路를 황토로 포장하는 것을 금하였는데,[66] 이와 같은 서술은 국왕 주요 거처가 본궐과 분리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충렬왕이 본궐로 거처를 옮긴 후 머지않아 다른 곳으로 이어하는 정황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충렬왕대 확인되는 본궐 이어 사례는 5회에 불과한데, 그마저 머지않아 사판궁·수강궁 혹은 사제·사원 등으로 거처를 옮긴다.[67] 즉, 충렬왕대에도 본궐은 국왕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그보다 충렬왕대 국왕의 주요 거처는 수령궁(죽판궁)이 83개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판궁이 47개월로 그다음이다. 충렬왕 4년(1278) 馬堤山 인근에 지어진 離宮 壽康宮에 때때로 거처하기도 하지만,[68] 실질적으로 그곳에 국왕이 거주하며 정무를 본 기간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충선왕측과 정치적 갈등을 겪은 이후 충렬왕은 栢井宮과 같은 생소한 별

65)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8월 己巳; 11월 乙酉; 충렬왕 2년 2월 丁未; 5월 乙巳; 9월 甲午; 충렬왕 6년 3월 丙辰; 충렬왕 8년 4월 乙卯.

66)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鼇山額, '聖壽萬年'四字, 爲'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 爲呼千歲, 輦路, 禁鋪黃土."

67) 구체적인 충렬왕대 국왕 본궐 거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장소	왕력	날짜(음)	기간	이후 移御 장소
本闕	3	11월 12일~11월 17일	5일	李貞 第
	3	11월 27일~12월 12일	α	沙坂宮
	5	4월 28일~4월 30일	2일	賢聖寺
	6	1월 11일~2월 16일	1개월	壽康宮
	13	2월 9일~4월 27일	2개월	神孝寺

68)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10월; 《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 4년 10월; 마제산은 나성 성곽 남쪽으로 40里에 정도 떨어진 德水縣 인근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3, 京畿 豐德郡; 《陽村集》 권3, 詩 致堂; 《中京誌》 권3, 山川)

궁을 활용하거나, 명순원비·숙창원비나 홍비 등 왕실 여성의 별저를 국왕 거처로 삼기도 한다. 특히 '종실[69]'인 齊安公 淑의 사저를 별궁으로 만들어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처럼 충렬왕대 궁궐 운영에는 시기별로 차이가 나지만, 국왕이 거주하며 정무를 보는 공간은 대체로 재위 전반에는 사판궁, 후반에는 수령궁으로 집중된다. 이에 충렬왕이 사판궁에 주로 머물며 정무를 보는 즉위~11년, 본격적으로 수령궁으로 入御하는 12년 이후로 나누어 점차 수령궁 중심의 궁궐 운영이 수립되어 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충렬왕은 원종이 홍서하자 원으로부터 돌아와 원종 말년에 正宮의 역할을 하였던 제상궁을 철폐하는 한편, 사판궁을 주 거처로 삼았다.[70] 이듬해에는 竹坂宮 확장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는 고려에 下嫁한 제국대장공주의 생활을 위한 궁이었다. 죽판궁은 제국대장공주가 처음 入京했을 때 머무른 곳이었으며, 충렬왕 6년(1280) 완성된 신궁은 膺慶宮으로 불린 데에서도 알 수 있다.[71] 1275년(충렬왕 1) 開府한 제국대장공주의 后妃府가 곧 膺善府였으니,[72] 그와 짝해 궁궐에 별칭이 붙여진 것이다.

이때 신궁 건설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공주의 생활을 위한 궁궐인 만큼 제국대장공주도 이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그는 몽골식 건축양식에 따라 고층 건물로 죽판궁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제국공주가 원에 직접 工匠을 요청한 사실이나,[73] 당시 日官이 三層閣을 짓지 말 것을 청했으나 공주가 듣지 않았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74] 죽판궁 건설은 觀候署의 격렬한 반대와 이어지는 왕의 질환 등으로 중단되었지만,[75] 머지않아 재개된 신궁 공사는 民家 300여 戶를 철거하고 4

---

69) '종실'은 법제적 왕실인 諸王과 더불어 제왕이 파생시킨 기본 가족 일부를 포함한다. 고려 왕실은 왕실 여성의 배우자를 '宗室' 출신으로 제한하여 왕실의 혈통과 특권을 보존하였다. (황향주, 2022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7쪽)

70)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9월 戊戌; 충렬왕 원년 8월 乙巳;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8월 戊辰; 9월 乙酉

71)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11월 丁丑; 충렬왕 6년 6월 辛巳.

72) 《高麗史》 권89, 열전2 后妃 忠烈王 后妃 齊國大長公主

73) 《高麗史切要》 권19, 충렬왕 2년 12월

74) 《高麗史》 권89, 열전2 齊國大長公主. "日官又面請, 勿構三層閣, 不聽, 發諸道役夫, 督之愈急."

천여 명의 일꾼을 동원할 정도였다.[76] 당시 造成都監에 불이 나자 宮室 수리 공사로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경계한 것”이라고 한탄할 만큼,[77] 당시 신궁 건설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완공된 죽판궁은 泰通門과 寒碧樓이 있을 만큼 궁궐의 격식을 갖춘 것이었다.[78]

주목되는 것은 죽판궁의 위치이다. 《송경광고》에서는 죽판궁의 후신인 수령궁을 고려 말 남대문 바깥 水陸橋 옆에 있었다고 한다.[79] 즉, 충렬왕 즉위 초반 대규모의 공주궁이 십자가 약간 서쪽에 건설된 것이다. 고려국왕이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면서 사실상 고려의 제1 후비이기도 한 제국대장공주를 위한 공간이 본궐 바깥에 마련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80] 이는 제국대장공주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당시 개경에 온 공주는 고려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뿐더러 고려 왕비로서보다 몽골 공주로서 정체성이 강했다.[81] 제국공주로서도 고려 왕실을 상징하는 본궐에서 생활하기를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충렬왕도 造成都監으로 하여금 諸王·宰樞로부터 각 領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차등 있게 丁夫를 차출하여 목재를 산에서 운반하게 하는 등[82] 공

---

75)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7월 丙申; 《高麗史切要》 권28, 충렬왕 4년 4월;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7월 丙申.

76) 《高麗史》 권29, 충렬왕 5년 3월 庚戌.

77) 《高麗史》 권29, 충렬왕 7년 2월 丙戌. 造成都監灾. 時, 請元木匠, 以修宮室, 今已三歲, 民不堪苦, 人以爲, “天示灾, 以警之.”

78) 《高麗史》 충렬왕 6년 6월 辛巳.

79) 《松京廣攷》 권8, 佛宇2. “水陸橋側 本壽寧宮 忠宣王捨爲寺.”; 고유섭은 수창교 동쪽 멀지 않은 곳에 고려 시기 유물로 추정되는 層段側石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수창궁과 수령궁이 수륙교 西東으로 잇닿아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유섭, 앞의 책, 153쪽)

80) 충렬왕이 태자 책봉 직후 원종 원년 11월에 혼인한 貞和宮主가 제1妃였지만, 제국대장공주가 하가한 이후 正妃의 자리에서 물러나 공주가 훙서할 때까지 충렬왕 곁에 가지 못했다. (《高麗史》 권89, 貞信府主 王氏)

81) 김현라, 2008 〈고려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 《지역과 역사》23, 88쪽; 권순형, 2018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왕비로서의 삶〉 《여성과 역사》28, 4쪽.

82)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7월 庚寅; 李承休의 《帝王韻紀》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보여진다. 이승휴는 제국대장공주를 ‘天妹’로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의 소생인 충선왕을 帝孫과 같이 표현하면서 왕실의 안정과 백성들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다. (李承休, 《帝王韻紀》 下, 本朝君王世系年代; 김보광, 2012 〈고려 충렬왕

주궁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충렬왕으로서도 당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제국대장공주와의 혼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인식한 따름으로 생각된다.[83] 실제로 원의 간섭과 부원세력의 작폐를 최소화하고, 재추 관료들과의 대립을 지양하는 과정에서 충렬왕은 자신의 부마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다.[84] 죽판궁 건설은 충렬왕에게 있어서도 부마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표 3]에서도 살펴보았듯, 개경 중앙에 공주궁이 상당한 규모로 지어진 이후로도 한동안 국왕의 중심 거처는 사판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수강궁에 때때로 거처하기도 하지만, 그 방문은 주로 사냥 혹은 비교적 소규모 연회를 개최를 위함이었다.[85] 즉, 국왕이 거주하며 정무를 공간이기보다는 국왕이 신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즉, 신궁이 완공된 이후에도 충렬왕은 주로 사판궁을 중심 궁궐로 활용한 것인데, 이는 공주궁의 성격이 강한 죽판궁보다 사판궁에 머물며 일상적 정무처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충렬왕 즉위 초반 제국대장공주와의 불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86] 특히 1차 친조 이후 충렬왕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제국공주는 이를 경계하며 왕의 통치 행위에 적지 않은 비판을 가했다.[87] 이처럼 재위 초반 사판궁은 '왕궁[88]', 죽판궁는 공주궁의 역할을 하였다.

의 케시크(怯薛, *kesig*)제 도입과 그 의도〉 《사학연구》 107, 138쪽)

83) 당시 지식인층 사이에서도 고려가 원 황실과의 통혼으로 왕실의 위엄이 다시 세워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帝王韻紀》 下, 本朝君王世系年代)

84) 이익주, 1988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167-168쪽; 이정란, 2012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책봉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 18, 128쪽.

85) 《高麗史》 권32, 충렬왕 28년 6월 丙寅; 권124, 列傳37, 嬖幸 李貞.

86)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齊國大長公主.

87) 《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 6년 2월; 충렬왕 11년 8월; 《高麗史》 권89, 齊國大長公主.

88) '王宮'은 고려전기 일반적으로 왕이 거하는 궁성 영역을 칭하거나, 때론 황성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高麗圖經》 권4, 門闕 昇平門) 그러나 환도 이후, 본궐 바깥에 고려 왕실의 거주공간이 주로 마련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왕궁·상왕궁·공주궁 등 고려 왕실 구성원의 거주공간이 본궐 바깥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마련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사판궁은 수창궁과 십자가 사이에 있었다. 공주궁인 죽판궁은 십자가 서쪽에 중건되었으니, 이로써 국왕의 주 거처와 공주의 주 거처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각각 서·동쪽에 배치된 형상이 되었다. 환도 이후 고려 왕실의 거주공간이 궐 바깥으로 형성되어가던 것이 공주궁 건설과 함께 십자가 일대를 중심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무렵 고려 조정에서 본궐의 강안전 중수에 무관심했음은 언급한 바이다. 반면, 상당한 규모의 신궁이 개경 중앙에 건설된 것이니, 이제 십자가 공간이 송악산 기슭보다 고려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신궁 건설 이후 이곳에 외교 행사가 집중된 사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환도 직후부터 충렬왕대 원 사신 혹은 고려에 주재하는 원 관인이 참석한 행사를 모두 분석한 것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개경 환도 직후 외교행사의 설행 장소는 불분명하거나 제상궁·사판궁·수강궁 등에 분산되어 확인된다. 그러나 충렬왕 5년(1279) 죽판궁에 신전이 설치된 이후로 외교 관련 행사는 모두 죽판궁으로 집중된다. 충렬왕 초반까지 일정한 외교행사 거행 장소가 마련되어있지 않다가, 죽판궁에 신전이 설치되면서 그곳이 麗元 관계에서 고려를 대표하는 장소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죽판궁이 수령궁으로 개칭된 이후로도 이어진다. 강도 이전 몽골 사신 영접 장소는 줄곧 대관전이었으니, 이제 개경 중앙에 소재한 궁궐 전각이 대관전을 대체하는 외교의 장소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이 무렵 달라진 외교 영접 의례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에서는 외국 사신이 오면 궁성의 殿門에서 사신을 맞이하고 乾德殿(대관전)·會慶殿 등 궁성의 정전에서 詔書를 열어보며, 편전에서 연회하는 수순에 따라 영접 의례가 진행된다.[89] 즉, 왕이 외국 사신을 영접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도성 밖은 물론 궁성 바깥으로 나간 일조차 거의 없었다.[90]

되는 관행이 생긴다. (《高麗史》 권34, 충숙왕 즉위년 9월 丁酉) 따라서 이때 '왕궁'은 공주궁·상왕궁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국왕이 주로 머물며 정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89) 김창현, 2017 앞의 책, 394쪽.

90) 《高麗史》 권17, 인종 20년 5월 戊午.

[표 4] 개경환도 이후~충렬왕대 외교 행사 장소

왕	시기	장소	행사	주요 참석자	비고
원종	11년 9월	(알수없음)	宴	達魯花赤 脫朶兒	
	13년 2월	(알수없음)	宴	不花, 馬絳	堤上宮 추정
	13년 11월	(알수없음)	宴	元 使臣 贈白銀,苧布	堤上宮 추정
	14년 8월	堤上宮	享	副達魯花赤 焦天翼	
	14년 12월	(알수없음)	宴	達魯花赤	堤上宮 추정
충렬왕	즉위년 11월	(알수없음)	宴	忽赤 康允紹	강안전 추정
	1년 12월	沙坂宮	受詔書	副達魯花赤	
	2년 1월	(알수없음)	享	忻都 妻	沙坂宮 추정
	2년 2월	內殿	宴	忻都 妻	어느 궁궐인지 알수없음
	2년 3월	(알수없음)	享	忻都	沙坂宮 추정
	2년 9월	(알수없음)	享	達魯花赤	沙坂宮 추정
	4년 11월	(알수없음)	享	濟州 達魯花赤	壽康宮 추정
	4년 11월	壽康宮	餞別宴	郎哥歹	
	5년 10월	죽판궁	宴	亐丹赤, 塔納, 必闍赤, 哈伯那	
	5년 10월	죽판궁	宴	木匠提領	
	5년 10월	죽판궁	宴	回回人	
	5년 11월	죽판궁	宴	郎哥歹	
	6년 2월	죽판궁	宴	郎哥歹	
	6년 8월	죽판궁	宴	愛牙赤	
	6년 11월	죽판궁	宴	塔納哈, 伯那	
	9년 4월	죽판궁	宴	塔納, 阿孛禿剌	
	12년 2월	수령궁	宴	元 使臣	
	15년 3월	수령궁	宴	阿古大	
	18년 9월	수령궁	宴	洪君祥	
	24년 1월	수령궁	宴	阿木罕	
	24년 8월	수령궁	受詔書	孛魯兀	
	26년 11월	수령궁	宴	闊里吉思	
	27년 1월	수령궁	享	闊里吉思	
	27년 1월	수령궁	享	闊里吉思	
	28년 11월	수령궁	宴	安西王 使臣	
	30년 8월	수령궁	講論	紹瓊	
	30년 11월	수령궁	奉御香	宦者 李淑	奉御香

《고려사》·《고려사절요》 기준으로 작성
추정은 국왕의 직전 移御 별궁 기준으로 기재

그러나 몽골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고려국왕이 나성의 문 바깥까지 가서 受詔하는 절차가 정비되었다. 몽골에서는 일찍이 성 바깥에서 외국의 군주가 詔使를 영접하는 일을 중요시했으며, 원대에 들어서는 《大元聖政國朝典章》에서 '外路에서 詔赦를 出迎하고 拜禮하는 의례' 규정을 만들어 외국 군주의 영접 의례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91] 이에 환도 이래 원종대부터 고려국왕은 조사가 오면 문무관을 수반하고 선의문까지 나아가 영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접 의례 및 그 장소의 변화는 지리적으로도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본궐의 전각보다 선의문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개경 중앙에 마련된 전각이 외교행사의 장소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충렬왕은 사판궁을 주요 정무공간으로, 공주궁인 죽판궁을 외교행사 장소로 활용하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국운영 공간을 형성해나갔다.

충렬왕 10년(1284) 궁궐 운영에 한 차례 더 변화가 일어난다. 충렬왕이 죽판궁에 大殿을 설치하도록 명한 것이다.[92] 이 대전은 12년 2월 기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니, 아마 그즈음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93] 이미 죽판궁에 신전이 있었음에도 새로이 대전을 설치한 것인데, 이는 충렬왕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죽판궁에 '왕궁'의 의미를 더한 조처로 보인다.[94] 그 이름을 수령궁으로 개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충렬왕의 생일인 '壽元節', 이궁 '壽康宮'과 짝해 수령궁으로 개칭한 것이다.[95] 충렬왕 19년(1293) 3월 충렬왕이 推忠宣力定遠功臣의 칭호를 하사받은 하례 행사 또한 수령궁 대전에서 거행되었으니,[96] 대전은 국왕의 통치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

91) 원 복속기에 변화한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역사와 현실》98, 116-127쪽 참고.

92) 《高麗史》 권29, 충렬왕 10년 11월 癸巳.

93) 《高麗史》 권30, 충렬왕 12년 2월 丁巳.

94) 김창현, 2002 앞의 책, 208쪽.

95) 한편, 당시 壽寧宮은 上都에 위치한 세조 쿠빌라이의 궁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쿠빌라이는 주로 업무를 보거나 초재를 지냈다. (《元史》 권11, 至元 8년(1281) 秋7월 辛酉; 9월 壬辰; 至元 31년(1294) 5월 庚戌)

96) 《高麗史》 권30, 충렬왕 19년 4월 癸丑.

이렇게 충렬왕은 별도의 통치영역인 대전을 마련하면서, 약 11년 만에 비로소 수령궁으로 入御 한다. 반면, 사판궁은 軍器庫의 부지로 활용되며 '왕궁'의 의미를 상실한다.[97] 충렬왕 21년(1295) 세자(이후 충선왕)가 왕과 제국공주를 알현하기 위해 수령궁으로 찾아오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수령궁은 후비 뿐 아니라 국왕의 중심 거주공간이 되었다.[98]

이로써 수령궁은 외교행사의 중심공간에서 나아가 국왕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정무를 보는 공간의 의미까지 더해졌다. 국왕의 정무공간인 사판궁과 외교행사 장소로서 죽판궁의 기능이 수령궁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후 원론적으로 '王宮正殿'에서 거행되던 朝賀 의례 행사도 점차 수령궁으로 이전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 <원> 황제의 聖節에 大殿에서 잔치를 열고 宋人들이 作戲를 벌였다. 충렬왕이 왕(충선왕)을 불러서 보게 하였으나 왕은 사양하고 〈연회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때 왕의 나이 14살이었다.[99]

위 사례는 단순히 수령궁이 송 사람들의 잡희가 행해지는 연회의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원 황제의 성절을 기념해 거행된 잔치라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원종 이래 황제의 성절에 고려에서는 고려에 주재하는 원 관인을 포함한 고려 조정의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遙賀儀가 거행된다. 이때 요하례는 正至冬至聖壽節의 정기 조회 앞서 추가로 행해지며, 이후 고려의 문무백관으로부터 고려국왕이 조하를 받는 의식[受朝賀]이 끝나면 곧바로 연회(元會儀)가 이어진다.[100] 즉, 위 사례에서의 연회는 요하의를 포함한 조

---

97) 《高麗史》 권30, 충렬왕 14년 7월 壬寅.

98) 《高麗史》 권31, 충렬왕 21년 9월 甲申.

99) 《高麗史》 권33, 충선왕 총서 충렬왕 14년 8월. "以聖節, 宴于大殿, 宋人作戲, 忠烈召王觀之, 王辭不入, 時王年十四.."

100) 大朝는 원론적으로 문무백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회를 말한다. 조하의는 元正·冬至, 국왕·왕비의 탄일에 거행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원 복속기에 들어서면서는 원정·동지·聖節에 원 황제에게 遙賀하는 의례가 추가된다. 이때 그 수순은 正至冬至聖壽節의 정기 조회→受朝賀→연회로 이루어지며 그에 앞서 遙賀儀가 추가된다. 朝會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정은정, 2021 〈고려 朝儀 구성과 정비〉

하의가 끝난 이후의 연회로 이해된다. 이것이 수령궁에서 거행되었음은 원론적으로 본궐의 정전에서 행해지는 大朝 의식 행사가 수령궁에서 거행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물론 수령궁 대전 설치 이후, 모든 정기 조하가 수령궁에 집중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적어도 수령궁 대전이 '왕궁정전'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있었음은 분명히 보여준다.[101] [표 2]에서도 보이듯, 이 시점부터 본궐에서 중요한 국가 도량의 거행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충렬왕은 본궐의 기능을 서서히 수령궁으로 집중시켜, 십자가 중심의 국정운영 공간을 마련해간 것이다.

충선왕과 정치적 격돌 이후 충렬왕은 백정궁과 같은 생소한 별궁을 거처로 삼거나, 명순원비·숙창원비나 홍비 등 왕실 여성의 사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 무렵 충렬왕의 딸인 靖寧院妃와 혼인한 '종실' 齊安公 淑의 사저를 제상궁으로 삼아 빈번히 그곳에 머무른다. 충렬왕 26년부터 30년까지 왕은 총 8차례 제안궁으로 이어하였으며, 원에 친조를 다녀와서도 왕은 계속 제안공 집에 거처를 둘 정도로 제안궁은 이 무렵 왕의 주된 거처였다. 重祚 이후 충렬왕측과 충선왕측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대내외적인 상황이 충렬왕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왕실·종실 세력과 결집하여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102] 숙창원비의 사저 인근에 梨峴新宮을 건설한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도 수령궁은 중심 궁궐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충렬왕이 숙창원비 사저에 머무를 당시 소재도량이 이현궁에서 거행되기도 하지

《역사문화연구》80, 36~54쪽; 2022 〈10~13세기 初 朝儀 운영〉《사학연구》146, 103-106쪽 참고.

101) 桑野榮治는 충렬왕대 요하례를 포함한 조하의는 모두 강안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 한편, 최종석은 고려 국왕을 정점으로 한 원정조하는 요하례와 결합한 형태로 궁궐 정전(강안전)에서, 황제 성절 요하례는 정동행성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野榮治, 2004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對明遙拜儀禮の創出－〉《九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21, 69쪽; 최종석,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한국학연구》59, 395-400쪽)

102) 이는 당시 충렬왕의 측근 세력 재편이 유력한 가문 출신이나 특정 가계의 혈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경향과도 통한다. (김광철, 2018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87~89쪽)

만,[103] [표 4]에서도 보았듯이 고려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수령궁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조하가 거행되는 '왕궁정전'의 기능도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충선왕 복위년의 즉위식이 수령궁에서 거행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충선왕은 전통적 절차에 따라 강안전에서 灌頂道場을 열고 경령전에서 왕위 계승을 알렸지만, 백관으로부터 조하를 받기 위해서는 가마를 타고 수령궁으로 이동했다.[104] 이는 수령궁이 충선왕의 모후인 제국대장공주와 깊은 관련이 있던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충선왕의 세자 시절부터 이곳이 본궐의 전각을 대신해 '수조하'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던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충렬왕은 수령궁을 중심으로 궁궐 운영을 이어나가면서 십자가 일대는 본궐을 대신해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충선왕은 복위하자마자 연경궁을 대규모로 증축하는 한편 수령궁을 旻天寺로 희사해 모후인 제국대장공주를 추념하는 장소로 만들었다.[105] 그러나 충선왕은 즉위 전부터 그 후비인 薊國大長公主의 궁려를 수창궁 터에 짓도록 하고 그 주변을 모두 기와집으로 개변시키도록 하였으며, 市街 長廊을 크게 확장하도록 건의하며 십자가 일대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106] 복위하고 나서도 민천사에서 매월 3천 명의 승려가 반승하도록 하면서, 그 공간의 중요성은 계승하고자 하였다.[107] 上王의 정치운영을 부정하는 정치형태 속에서도 십자가 일대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 것이다.[108]

---

103) 《高麗史》 권32, 충렬왕 33년 5월 乙酉; 충렬왕 34년 3월 庚申.

104) 《高麗史》 권33, 충선왕 복위년 8월 甲寅.

105) 《高麗史》 권28, 충선왕 원년 3월 癸巳; 9월 甲辰; 김창현은 연경궁의 위치를 본궐 동쪽 紫霞洞 인근으로 비정하였다. (2002 앞의 책, 187-189쪽)

106) 《高麗史》 권31, 충렬왕 23년 윤12월 乙丑; 권32, 충렬왕 33년 6월 丙午; 권105, 列傳18 諸臣 鄭可臣.

107) 《高麗史》 권34, 충선왕 3년 1월 丁丑; 민천사는 그 공간의 성격이 사원으로 변한 이후로도, 개경 중심에 있으면서 중대한 국가 사안에 대한 군신 혹은 재추회의가 행해지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高麗史》 권34, 충숙왕 즉위년 6월 癸未; 권35 충숙왕 11년 12월 甲寅; 권110, 列傳23, 諸臣 李齊賢;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 권122 列傳35 宦者 李大順)

108) 한편, 연경궁이 중수된 이후 중요한 의례·연회가 이곳에서 거행되곤 하지만, 고려 왕실 여성의 별저나 관료의 사저가 더욱 빈번히 국왕의 時御宮(時坐宮)·移御所으로 등장한다. 연경궁 중수 이후 국왕 정국운영과 맞물린 국정운영 중심 공간

요컨대 충렬왕이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면서, 고려에 하가한 몽골 공주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 본궐 바깥에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수령궁(죽판궁)은 제국대장공주를 위해 십자가 중심부에 대규모로 증축된 궁궐이었다. 충렬왕 즉위 초반 동왕은 수령궁 인근의 사판궁에 주로 머물며 일상의 정무를 보는 한편, 수령궁은 麗元 관계에서 고려를 대표하는 장소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충렬왕은 본궐을 중수하기보다는 수령궁에 자신의 통치영역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왕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십자가 일대는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더욱 굳어져 갔다.

2. 국왕의 관료 私第와 寺院 移御

개경 환도 이후 본궐 바깥으로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이 형성되는 와중에, 개경 내 사제나 사원 역시 국왕의 보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번에도 충렬왕대 국왕의 관인 사제와 사원 거처 사례를 먼저 제시하면 [표 5]·[표 6]과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충렬왕은 사제와 사원에도 빈번히 이어하였다. 개경 일대의 사원은 고려전기 이래 고려국왕들이 개경 都內의 사원은 물론 郊外의 사원에도 빈번히 행차하고, 때로는 한동안 머물기도 하면서 국왕 통치의 보조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109] 따라서 충렬왕대 국왕의 사원 이어는 전통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충렬왕대 들어서면서 거처로 삼은 사원으로 원 황실 원당과 연계된 사원이 등장한다는 점은 이전과 차이가 난다. 현성사는 충렬왕 원년 세조 쿠빌라이를 위한 불사가 이곳에서 열린 데에서 알 수 있듯 세조의 원당으로 기능하였으며, 신효사와 묘련사는 충렬왕대 원 황실 기복을 위해 창건된 사원이었다.[110]

의 변화 추이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109) 박윤진, 1998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韓國史學報》 3·4호, 80~99쪽.

110)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4월 己酉; 《東文選》 권71, 記 神孝寺新置常住記; 권118, 碑銘 妙蓮寺中興碑.

[표 5] 충렬왕대 私第별 국왕 거주 기간 (추정 포함)

단위: 개월

왕력	박구	김방경	김흔	이정	장순룡	염승익	허공	차신	안향	허평	노영수	장선	김문연
즉위													
1	1												
2													
3		α	2	α									
4				α									
5				α	1								
6						α							
7													
8							α						
9		7											
10													
11													
12													
13													
14								4					
15								1					
16													
17													
18		α							α				
19									6				
20													
21													
22													
23		α			3								
24					α								
25										3			
26										2			
27											4	α	
28													
29													
30													
31													
32													
33													
34													3
총기간	1	8	2	α	4	α	α	5	6	5	4	α	3

* [표 3]과 제작 방식 같음.

[표 6] 충렬왕대 寺院·官府별 국왕 거주 기간 (추정 포함)

단위: 개월

왕력	사원								관부		원 입조
	현성사	정인사	효신사	수구 관음사	신효사	묘련사	왕륜사	선원사	첨의부	승덕부	
즉위											
1	α									α	
2											
3		α								α	
4											5
5	α			α							α
6											2
7											
8					α						
9											
10											6
11					7						
12					1						
13					1						5
14											3
15			8			1					1
16						1	α	α			
17								8			
18						α					
19											1
20											
21											
22											3
23	α				α				α		4
24											
25											
26											4
27											
28											1
29											4
30											
31											1
32											12
33											4
34											
총기간	α	α	8	α	9	2	α	8	α	α	56

* [표 3]과 제작 방식 같음.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국왕의 사제 이어이다. 국왕이 주도적으로 관인 사제를 거처로 삼거나 그곳을 별궁으로 삼는 모습은 의종대 이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광종 12년(961) 궁궐을 수리할 때 임시로 正匡王育의 사제로 거처한 사례, 인종 4년(1126) 이자겸이 왕을 위협해 자신의 사제로 거처를 옮기게 한 사례만이 확인될 뿐이다.[111] 《고려사》에서 국왕의 행방을 가급적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이를 기록의 부재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종대에 이르면 국왕의 빈번한 궐 바깥 이어가 이루어지면서, 관인 사제도 때때로 국왕 거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가 基業의 연장과 군주의 장수가 국왕의 잦은 이어에 달려있다는 卜者인 內侍 榮儀의 말에 다분히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의종은 영의의 말에 따라 이름난 개인 집을 취해 이궁·별궁으로 삼아 빈번히 이어하거나 행차하였다.[112] 즉, 의종의 사제 이어는 전통적 범주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이 관료 사제에 이어하며 그곳을 정국운영의 보조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무신집권기부터이다. 최씨 집권자들이 그들 사제를 고려 조정과 별도로 국정 회의가 행해지는 정치공간으로 형성해감에 따라, 왕도 때때로 최씨 사제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 국왕의 사제 이어는 당시 집권하던 최씨 부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며,[113] 국왕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충렬왕대부터 전개되는 국왕의 사제 이어는 국왕이 주체적으로 관료 사제를 통치의 보조공간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이 본궐 바깥에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일대 부근의 사판궁·수령궁이 중심 궁궐로 기능함에 따라 개경 중심부에 자리한 관료 사제도 국왕 통치의 보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충렬왕이 왕실 여성과 '종실'의 저택에도 빈번히 거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본궐 바깥에 분산된 왕실

111) 《高麗史》 권2, 광종 12년; 권15 인종 4년 3월 丁卯.
112)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 榮儀; 김창현, 2004 〈고려 의종의 이어(移御)와 그에 담긴 관념〉 《역사와 현실》53, 147쪽-148쪽.
113) 《高麗史節要》 권14, 희종 4년 2월; 윤4월.

구성원의 거소도 이와 맞물려 보조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고려에 하가한 원 공주뿐 아니라 고려 출신 후비나 왕녀의 별궁이 국왕의 통치 활동공간으로 기능하는 사례는 고려말까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왕이 자신의 후궁인 肅寧翁主에게 權鑄의 집을 수리하여 주면서 자신의 時座所로 삼아, 그곳에서 모든 재상의 업무 보고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114] 개경 환도 이후 고려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중심 거주공간이 본궐 바깥으로 분산되면서, 고관 혹은 왕실 구성원의 저택이 국왕의 보조공간으로 활용되는 관행은 본격화되었다.

한편, 충렬왕은 세자 시절 국내에서 세력기반을 형성할 수 있던 이전 시기와 상황이 달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왕은 원종 10년(1269) 이후 즉위할 때까지 거의 몽골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국내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그는 즉위 후 재상들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원에서 숙위할 때 자신을 시종하던 자들, 譯官, 內僚, 제국대장공주의 怯怜口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다.[115]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적 혜택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 특히 鷹坊, 공주의 겁령구, 내료, 호종 신료 등에게 하사한 賜田은 많은 경우 수백 결에 이르렀다.[116] 이는 국왕을 향한 충성에 대한 포상의 의미였겠지만, 후일 그들 사제를 거처로 삼았으니 동시에 그들 사택을 보조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충렬왕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실제로 충렬왕이 거처로 삼은 사제는 사전의 혜택을 받은 범주에 대체로 부합한다. 원종 폐립 사건 당시 세자로서 원에 입조해 있던 충렬왕과 만나 임연 정권을 토벌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김방경부터 응방 관계자인 이정, 제국대장공주의 겁령구로 고려에 귀화한 장순룡·차신, 국왕의 원 입조 시 호종한 염승익·허공·안향은 그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사전은 有功者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대로 상속

114) 《高麗史》 권136, 列傳49 우왕 12년 1월.
115) 이익주, 1998 앞의 논문, 72-99쪽.
116) 《高麗史》 권28, 忠烈王 3년 2월 己巳; 권29, 忠烈王 8년 5월 庚申; 권123, 列傳36, 嬖幸, 廉承; 사전은 본래 토지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지급규정이 따로 없어 국왕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측근 인물들에게 濫授할 소지가 있었다.) 朴京安, 1985 〈高麗後期의 陳田開墾과 賜田〉 《學林》 7, 51-52쪽)

이 되니,[117] 김방경의 아들인 김흔과 허공의 아들 허평도 衣冠子弟로서 사전 혜택의 범주에 속한다. 숙창원비의 친오빠인 김문연과 같이 당시 고려 왕실 여성과 인척 관계인 자들의 사제가 국왕 거처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趙妃의 아버지인 조인규 사위였던 노영수 역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118]

[표 7] 충렬왕대 私第 移御 일람

이름	당시 관직	사행 및 호종 경험 유무	원 관직 征東行省官
朴瑺	左僕射	使行(충렬 즉위)	-
金方慶	僉議中贊	使行(원6·10·14·충렬1·2·6) 扈從(충렬4)	虎頭金牌/萬戶
金忻	知兵馬事	使行(원15) 禿魯花(충렬5·8)	管軍萬戶(충15) 左軍萬戶(충16)
李貞	鷹坊관계자 王旨使用別監	使行(원13)	萬戶 摠破
張舜龍	將軍 同知密直司事	使行(충렬1·3·4·5·10·13·15)	金州萬戶府摠管(충7)
廉承益	承旨 副知密直司事	使行(원종 14) 述赦 (충렬?) 扈從(충렬15·19)	-
許珙	叅文學事	使行(충렬1) 扈從(충렬4)	-
車信	將軍 贊成事 世子貳師	使行(충렬3·4·14·16)	-
安珦	密直	禿魯花(충렬?) 扈從(충렬15)	征東行省官 (충14~15)
許評	同知資政院事	禿魯花, (충렬5) 弓箭陪(충렬11)	-
盧穎秀	? (이후 左承旨)	-	-
張瑄	萬戶	?	合浦萬戶(충?)
金文衍	同知密直司事	禿魯花(충숙 즉위)	三珠虎符/萬戶

《高麗史》 《高麗史節要》 묘지명(김용선,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을 참고 작성

117) 《高麗史》 권78, 食貨1 功蔭田柴 우왕 5년.

118) 충렬왕대 국왕의 측근 세력과 국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된 바 있기에,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익주, 1996 앞의 논문, 72-99쪽 참고.

이처럼 국내 세력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력 신료들에게 사전을 지급하고 그들 사제가 때때로 국왕의 보조공간으로 활용된 것은, 황폐해진 개경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국왕이 이어하는 건물은 국왕 이어에 수반되는 인력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버금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경제적 혜택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 대규모의 사제를 조영하는 유행이 생겼다. 예컨대 제국대장공주의 겁령구로 고려에 귀화한 인후, 장순룡, 차신은 서로 더 좋은 저택을 짓기 위해 경쟁하며 그 사치스러움이 분수에 넘치는 것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119] 특히 충렬왕이 재위기간 4차례나 거처로 삼은 장순룡 사저에는 기와와 조약돌로 바깥에 담을 쌓은 모습이 화려하여 사람들이 '張家墻'이라 부를 정도였다.[120] 장순룡이 사망하자 충렬왕은 그 사저를 덕자궁으로 삼을 만큼 그의 저택은 궁실에 버금가는 규모였다.[121]

이외에도 염승익은 其人 50명을 동원하여 집을 지었다가 이후 大藏寫經所로 고치는데, 이 사경소는 《妙法蓮華經》이 제작될 정도의 규모였다.[122] 안향은 충렬왕 27년(1301) 國學(國子監) 재건 사업에 자신의 御宅을 국가에 헌납할 정도로 豪富였는데, 그때 헌납된 토지는 이후 대성전으로 완공되었다.[123] 차신의 집 역시 후일 충선왕이 王宮으로 삼을 정도였으니 이미 궁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4]

이처럼 충렬왕은 측근 신료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그들 사제를 대규모로 짓는 것을 저지하지 않기보다, 오히려 그들 저택을 보조공간으로 삼았으면서 개경에는 화려한 대규모 저택들이 들어섰다.[125] 이러한

---

119) 《高麗史》 권123, 列傳36, 嬖幸, 印侯.

120) 《高麗史》 권123, 列傳36, 嬖幸, 張舜龍.

121) 《高麗史》 권29, 충렬왕 5년 6월 庚辰; 9월 戊辰; 충렬왕 23년 9월 丁亥; 충렬왕 24년 1월 丙午.

122) 《高麗史》 권123, 列傳 36, 嬖幸, 廉承益; 권희경, 2003 〈寫經院과 廉承益 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7권본 1부〉 《한국기록관리학회지》3(1), 6-9쪽.

123) 《晦軒先生實記》 3, 年譜.

124) 《高麗史》 권30, 충렬왕 13년 10월 庚午; 《高麗史節要》 권22, 충렬왕4, 충렬왕 24년 2월 미상.

125) 《牧隱文藁》 권5, 記 築隱齊記. "今之士大夫 得志行己 華其居 豊其食…至於席未暖而移居 壁未乾而易主."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져 고려말까지 고관 사저는 국왕 통치의 보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126]

이때 충렬왕이 거처로 삼은 사제 역시 국왕의 행동반경과 그리 멀지 않은 십자가 인근 지역으로 확인된다. 김방경의 사제는 鶯溪里에 있었으며,[127] 이후 장순룡과 안향의 집은 모두 조선 초 정동행성 건물을 개편한 태평관 인근 마을이었다.[128] 이들 외에도 고려 후기 韓脩·李穡·權溥·南在 등의 고관 사제도 정동행성 인근 마을에 있었음이 확인되니,[129] 당시 정동행성 인근 지역은 고관 사저가 밀집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재위 말년 충렬왕 후비인 숙창원비와 그 오빠 김문연의 사제는 충렬왕 재위 말년 지어지는 梨峴新宮 인근에 있었다.[130] 이현은 개성부 관아에서 동쪽 6리이며, 선죽교와 숭인문 사이에 있었다.[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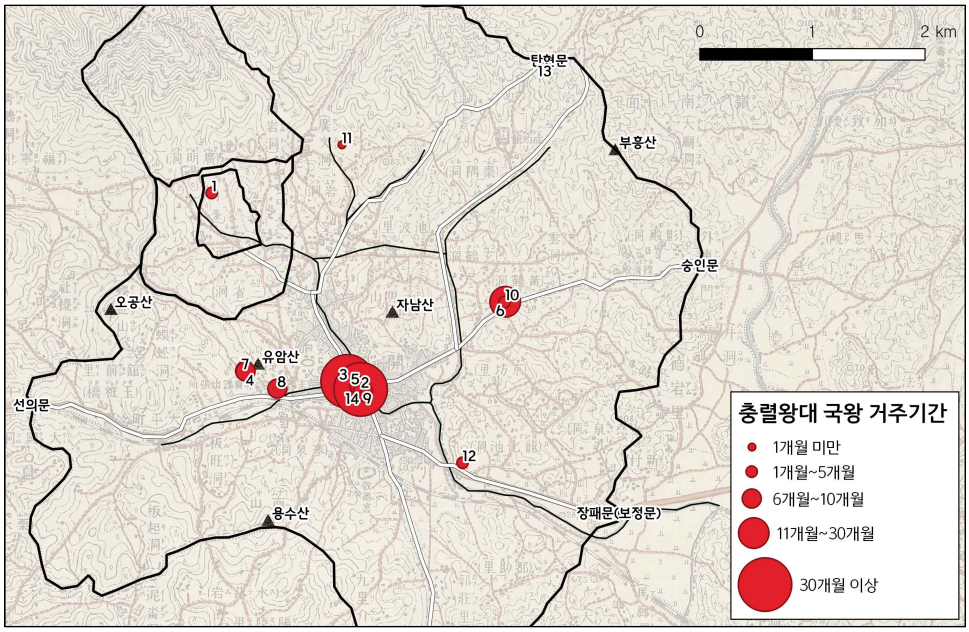
물론 이들이 모두 십자가 중심부에 밀집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전기 후비는 국왕 생존 시 궁성 안에,[132] 고관 신료는 국왕 생활반경과 멀지 않은 황성 안팎 영역에 주로 거주하던 고려전기와는 그 분포 양상에 있어 분명 차이가 난다. 무신집권기 이래 정국운영의 공간이 점차 본궐 바깥으로 확대되어 간 양상이 이어짐과 동시에, 그 주최가 고려 조정으로 변하면서 개경의 중심부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게 재건되어갔다.

한편, 일찍이 고려에는 개경 일대에 많은 사원이 분포하였다. 충렬왕대 민천사·신효사·묘련사 등 원 황실 기복을 위한 사찰이 창건하기도 하지

---

126) 《高麗史》 권107, 列傳20 諸臣 權準; 《高麗史節要》 권24, 충숙왕 12년 11월.
127) 「金方慶墓誌銘」(김용선,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28)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1, 忠宣王 卽位年 1月 癸丑;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東國輿地志》 권1 京都, 開城府.
12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下.
130) 충선왕 복위년(1308) 왕이 숙창원비를 만나기 위해 김문연 집에 행차한 사실이나, 같은 해 충선왕이 김문연 사제에 머물고 있자 백관이 교서를 받들기 위해 梨峴新宮에 모인 사실에서 인근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권33, 충선왕 복위년 10월 癸巳; 《高麗史》 권33, 충선왕 복위년 11월 辛未)
13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山川; 《輿地圖書》 권5, 松都 山川.
132) 고려전기 후비들은 일반적으로 국왕 생존시 正宮 안의 內殿에 거주하였으며, 국왕과 후비는 중심 건물과 부속 건물로 구성된 동일 구역 내에 기거한다. (신혜영, 2021 〈고려 전기 후비의 생활공간과 의미〉 《여성과 역사》35, 109-128쪽)

만,[133] 충렬왕은 기존에 있던 개경 일대의 사원을 대체로 유지하고자 했다. 즉위 초반부터 五大寺를 수리하고 현화사·남계원·왕륜사 등에 불전을 짓거나 석탑을 짓게 한 것은 그러한 예이다.[134] 이에 충렬왕대 거처로 삼은 사원 역시 개경 도내 지역은 물론 도성의 지역을 벗어난 교외 지역으로까지도 산견된다.



배경지도: 근대지형도 1:50,000 지도(19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번호	장소(개월)	번호	장소(개월)	번호	장소(개월)	번호	장소(개월)
1	本闕(3)	5	栢井宮(9)	9	金方慶 第(8)	13	賢聖寺(a)
2	壽寧宮(竹坂宮) (47)	6	金文衍 第(3)	10	淑昌院妃第(15)	14	僉議府(a)
3	沙坂宮(83)	7	張舜龍 第(4)	11	王輪寺(a)		
4	德慈宮(8)	8	安珦 第(6)	12	妙蓮寺(2)		

[그림 3] 충렬왕대 개경 내 국왕 거처 분포지도

133)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7월; 《東文選》 권71, 記 神孝寺新置常住記; 권118, 碑銘 妙蓮寺中興碑.

134)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9월 戊戌; 충렬왕 원년 8월 乙巳; 권29, 충렬왕 6년 2월 戊戌; 충렬왕 9년 7월 戊午; 권110, 列傳23 諸臣 金倫.

그런데 충렬왕대 무렵부터 개경 중심부에 소재한 사원의 기능과 위상이 다소간 달라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주지하듯, 충렬왕대 들어서면서 개경 일대의 일부 사원은 新福佛事와 喪禮·祭禮가 거행되는 등 원 황실 원당과 연계된 사원으로 그 성격이 변한다.[135] 이에 원 황실을 위한 축성의식이 연례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 그 거행 장소로 개경 중앙의 사원이 선정된다. 보제사(연복사)·묘련사·봉은사가 대표적이다. 보제사(연복사)는 십자가 중심부에, 묘련사는 三峴理에 소재했으며, 봉은사는 정동행성 인근으로 모두 개경 중심부에 해당한다.[136]

보제사는 태조가 창업 후 열었던 10刹 가운데 하나로 일찍부터 도성 내에 있으면서 외적 기양을 위한 五百羅漢齋와 談禪法會가 열린 사찰이었다. 그러나 충렬왕대에 이르면 이곳은 매년 세조 쿠빌라이의 생일인 乙亥日에 법석이 거행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하였다.[137] 보제사가 강화 천도 이전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담선법회가 열리기도 했던 장소였음에도 세조의 생일을 기념하는 을해법석의 개최 장소로 선정된 것은,[138] 이것이 원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의 거처가 인근에 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보제사(연복사)의 위상은 개경 중앙에 위치하면서 고려 왕실을 상징하는 사찰로 부상하게 되었다. 고려말 공양왕이 왕실의 정통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십자가 중심부에 소재한 演福寺 탑을 舊都의 상징물로 상정한 것은 그를 잘 보여준다.[139]

한편 충렬왕대 창건된 묘련사는 원 황제뿐 아니라 원 황실 내 주요 인사들을 위한 불사가 매우 빈번히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묘련사는 봉은

---

135) 尹紀燁, 2004〈元干涉期 元皇室의 願堂이 된 高麗寺院〉《대동문화연구》46, 151-166쪽.

136)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7 祠宇, 廣通普濟寺;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 下; 《大東野乘》권13, 遣閑雜錄.

137) 《高麗史》 권28, 충렬왕 2년 1월 乙亥.

138) 김수연은 보제사가 을해법석의 개최 장소가 된 것은 일찍이 이곳에서 몽골군이 물러나기를 기원하는 오백나한도가 제작되고, 원을 저주하기 위해 담선법회를 개설한 사실이 원에게 알려졌을 때의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았다. (김수연, 2019 〈고려시대의 普濟寺(演福寺)의 佛事 성격 변화〉《이화사학연구》59, 178-181쪽)

139) 《高麗史》 권45, 공양왕 2년 1월 乙酉;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7, 祠宇 廣通普濟寺; 《東國輿地勝覽》권4, 開城府 上.

사와 함께 元正受朝儀 절차에 따라 요하례의 예행연습(習儀)이 행해지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140] 이 무렵 요하례는 앞서 언급했듯 원정·동지·성절의 정기 조하에 앞서 거행되는 것이니, 여기에는 원론적으로 문무백관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고려에 주재하는 원 관인들도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이다. 대규모의 연례적 국가 행사는 개경 중심부에 소재한 사원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반면, 고려전기 본궐과 가까이 자리한 사찰이 일반적으로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국가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던 法王寺나 興國寺는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다. 법왕사는 보제사와 같이 10찰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궁성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고려전기 이래 고려국왕들이 八關會 거행 이후 관행적으로 行香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환도 이후 법왕사는 고려전기의 위상을 크게 상실한다. 궁성이 고려 왕실의 거주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곳으로의 왕래가 자연스레 줄어든 것이다.

흥국사는 황성의 동남문인 廣化門 바깥에 있으면서 국왕 탄일을 축수하는 祈祥迎福道場이 시행되기도 하였다.[141] 흥국사는 환도 이후로도 관료들이 모여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장소로 주로 등장하지만,[142] 고려전기와 같이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국가 행사의 장소로는 등장하지는 않는다. 고려 왕실의 중심 거주공간이 십자가 일대로 이동하면서, 본궐을 주축으로 활성화되었던 개경은 그 중심축이 서서히 십자가로 이동하는 변화를 맞이해가고 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이 무렵 십자가 인근에 고층 누각인 涼樓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충렬왕 21년(1295) 세자였던 충선왕이 도

---

140) 《元史》 권67, 志18 禮樂1 元正受朝儀; 《高麗史》 권67, 志21 禮9 嘉禮 王太子節日受宮官賀竝會儀 충렬왕 25년 12월; 《高麗史節要》 권22, 충렬왕 25년 12월; 《高麗史》 권67, 志21 禮9 嘉禮 元正冬至上國聖壽節 望闕賀儀; 정은정, 2017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 漢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 《한국중세사연구》 49, 63쪽.

141) 《高麗史》 권7, 文宗 즉위년 12월 丙午.

142) 원 복속기 이후로 흥국사는 임금이나 관료의 정치공간으로 적지 않게 등장한다. 충렬왕대에도 김방경·한희유 무고사건 발생 시 흥국사에서 관련 인물들을 국문하곤 했다.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2월 丙辰; 권31, 충렬왕 25년 1월 戊戌) 고려후기 흥국사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는 강호선, 〈고려시대 개경의 흥국사(興國寺)〉 《한국중세사연구》 64, 40-44쪽.

첨의사에서 정무를 보고 수령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국왕과 공주가 이곳에 올라 지켜보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143] 이는 수령궁 인근에 높게 솟도록 설치되었다. 이것은 누각 위에는 연회를 열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었고, 아래로는 사람이 말을 타고 그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 설치된 형태의 누각이었다.[144]

흥미롭게도 양루가 설치된 이래 단오에 이곳에서 격구를 여는 국가 행사가 탄생하였다.[145] 물론 민가에서는 일찍이 단오를 맞이해 각종 행사가 거행되었겠지만, 고려전기 단오절의 국가 행사로는 국왕이 景靈殿에서 拜謁하는 기록만이 확인될 뿐이다.[146]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행사로서 개경 시내 중심에서 격구 행사를 개최하고 잔치를 여는 모습은 충렬왕 6년(1280) 처음 기록에서 확인된다.[147] 즉, 양루가 설치된 이후로 단오에 십자가 인근에 자리한 양루 아래에서 격구를 여는 국가 행사가 생긴 것이다.[148]

단오절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고려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젊은 武官과 衣冠子弟를 미리 뽑아 擊毬의 기예를 익히게 하였다. 격구 행사는 비단 유희적 목적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왕에게는 용맹한 군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었으며, 격구 참여자들에게는 국왕의 近臣이 될 절호의 기회였다.[149] 이색이 묘사하듯, 격구 행사 참여자들

---

143)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3 충렬왕 21년 9월; 김창현은 涼樓가 壽寧宮 안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김창현, 2017 앞의 책, 361쪽)

144) 《高麗史》 권30, 충렬왕 13년 6월 癸酉;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13년 6월.

145) 《治平要覽》 권148, 國朝 洪武帝. "高麗時, 預選武官年少者及衣冠子弟, 習擊毬之藝. 每端午節, 於九逵之傍設龍鳳帳殿, 自殿前左右各二百步許當路中, 立毬門, 路之兩邊以五色錦段結婦女之幕, 飾以名畫彩毯. 王幸帳殿觀之."

146) 《高麗史》 권18 의종 9년 5월 辛亥: 권19 명종 3년 5월 丙申: 명종 5년 5월 乙酉: 권24 고종 41년 5월 丙子.

147) 《高麗史》권29, 충렬왕 6년 5월 乙巳.

148) 양루가 설치된 이후로 이후 단오에 양루 아래에서 격구를 열고 잔치를 여는 모습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高麗史》 권29 충렬왕 6년 5월 乙巳: 8년 5월 辛酉: 9년 5월 戊午: 권30 충렬왕 13년 5월 乙未: 충렬왕 15년 5월 癸未: 권32 충렬왕 29년 윤5월 庚申: 30년 5월 丙辰) 涼樓는 충렬왕대 이후 기록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만, 이후에도 고려국왕이 市街地의 누각에 올라 擊毬·火炮·雜戲 등을 구경하는 모습은 고려말까지 찾아진다. (《高麗史》 권36, 충혜왕 후4년 11월 丙寅: 권134, 열전47 우왕 5년 5월; 《高麗史節要》 권25, 충혜왕 후4년 11월)

은 조정의 용사로 발탁되기 위해 얼굴과 눈이 깨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150] 이것이 개경 시내라는 개방적 공간에서 거행되면서, 卿大夫들은 물론 婦女까지 모여서 구경하였다.[151] 이는 결과적으로 국왕의 권위를 신민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다만 격구 혹은 석전 놀이가 고려후기에 성행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고려 왕실 행사가 장소의 확산을 거쳐 시가지라는 개방된 무대에서 거행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충렬왕대 설치된 양루는 개경의 새로운 중심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었다 하겠다.

요컨대 충렬왕대는 관인 사제나 사원에도 빈번히 이어하며 정국운영의 보조적 통치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충렬왕은 즉위 초반부터 유력 신료들에게 賜田을 하사하며 대규모의 사저를 조영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들 저택을 보조공간으로 삼았다. 개경 일대 사원은 기존의 위치를 대체로 유지하는 한편, 십자가 일대에 고려 왕실의 중심 공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개경 중심부에 자리한 사원의 위상은 점차 높아져 갔다. 십자가 일대는 이후에도 개경 중앙에 있으면서 고려 왕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

149) 《高麗史》 권124, 열전37 嬖幸, 尹吉甫; 《高麗史》 권39, 공민왕 10년 10월 乙未; 《太祖實錄》 총서 35번째 기사.

150) 《牧隱詩藁》 권29, 詩 端午石戰. “年年端午聚群頑, 飛石相攻兩陣間, 馬市川邊朝已集, 僧齋寺北暮方還, 忽然被逐輕如藥, 屹爾當衝重似山, 只爲朝廷求勇士, 殘傷面目亦胡顔.”

151) 《太祖實錄》 총서 35번째 기사.

三 . 주요 官府의 十字街 일대 배치

개경 환도 이후 원종대부터 차츰 정국운영의 중심축은 황성 일대에서 개경 중심부로 이동했다. 이는 본격적인 개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충렬왕대 십자가 중심으로 궁궐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고착화 되었다. 이로써 개경은 서서히 본궐이 아닌 십자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갔다. 본궐은 국왕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한편, 정국운영 공간이 점차 궐 바깥으로 이동한 것이니, 이와 함께 주요 관부 역시 새롭게 재편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 기록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충렬왕 즉위년(1274) 9월 戊戌 堤上宮 中書省을 史館으로 삼았다. 〈개경으로〉 還都한 이래로 사관을 세우지 못하여서 實錄을 本闕의 佛堂庫에 임시로 보관해 왔다.[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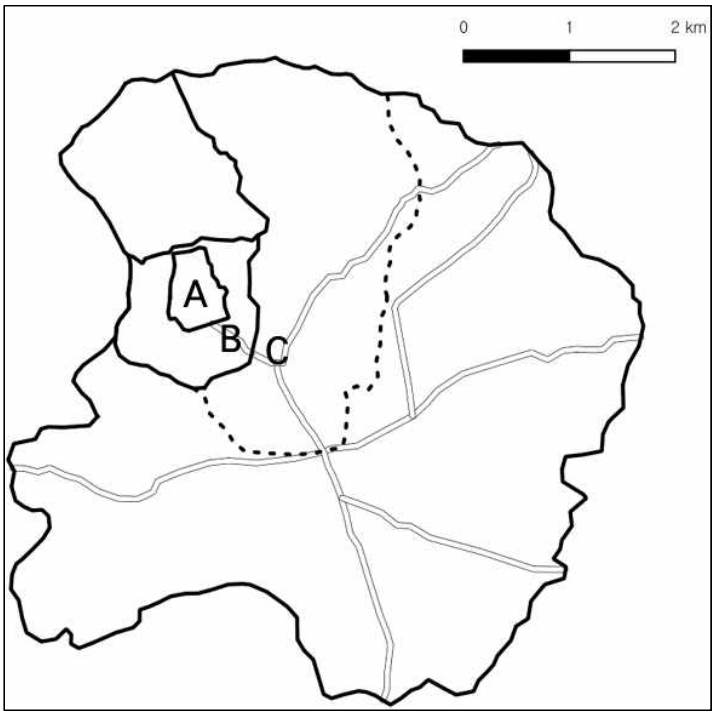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궐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종 말년 正宮의 역할을 한 제상궁에 중서성이 설치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충렬왕이 즉위한 직후 그 중서성을 다시 사관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사관은 궁성 영역에 소재하는 禁內官 중 하나이다.[153] 궁성 안쪽 깊이 존재했던 금내관이 본궐을 벗어난 개경 시내에 배치된 것이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개경 환도 이후 본래 국왕 상주를 전제로 편제되었던 관부들이 점차 이전과 다른 배치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요 관부 청사의 배치 양상을 중심으로 충렬왕대 개경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江都 이전 주요 관부가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52)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9월 戊戌. “以堤上宮中書省爲史館, 還都以來, 未營史館, 奉實錄, 假藏本闕佛堂庫.”

153) 《高麗史》 권23, 고종 4년 8월 丙午.



A: 尙食局·尙乘局·尙舍局·尙衣局·尙藥局·禁內六官·禮賓省
·近侍(內侍·宦官)·侍讀機構
B: 御史臺·樞密院·中書省·門下省·尙書省·軍器庫
C: 尙書戶部·工部·兵部·刑部·吏部·典獄署·考功司·大樂局·良醞局

[그림 4] 江都 이전 주요 官府 배치도

본궐은 국왕의 주요 통치공간인 宮城 구역과 왕의 통치를 보조하기 위한 공간인 皇城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관부의 배치는 궁성 영역(A)과 궁성의 승평문 바깥부터 황성의 광화문에 이르는 영역(B), 그리고 광화문 바깥의 관청거리(C)로 구분할 수 있다. 인종 연간에 방문한 서긍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을 기반으로 바깥부터 차례(C-B-A)로 관사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54]

먼저 황성 동문인 광화문 동쪽으로 이어진 관청거리(C)에는 상서성에 속하여 국가의 주요한 일을 맡은 상위 관청이 배치되었다. 尙書戶部·工部·兵部·刑部·吏部가 있었으며, 형부 남쪽에는 감옥과 죄수를 담당하는

154)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6, 官府.

典獄署가 있었다.[155] 이와 함께 관리의 고과를 담당하는 考功司, 음악을 담당하는 大樂局(大樂署), 酒醴를 담당하는 良醞局(良醞署)이 있었다.

궁성의 남문인 昇平門에서부터 황성의 동문인 광화문으로 이어진 관도에는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관리를 규찰하는 御史臺, 국왕을 시종하는 樞密院, 조칙을 작성하는 中書省, 그것을 심의하는 門下省, 그것을 집행하는 尙書省 순으로 배치되었다. 이들 배치는 대체로 업무상 국왕과의 밀접도가 고려된 것이었다.[156] 한편, 무기 제작 및 兵仗器를 보관하는 일을 맡았던 軍器監(軍器庫)는 '王居內城'에 있다고 한다.[157] 서긍은 내성의 正東門을 광화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니,[158] 이때 내성은 황성이다. 즉, 군기고 역시 황성 안쪽에 배치되었다.

가장 안쪽 국왕을 포함한 왕실 구성원의 생활공간이기도 한 궁성 영역에는 왕실 생활을 지원하는 尙食局·尙乘局·尙舍局·尙衣局·尙藥局 등 5局, 翰林院과 史館을 비롯한 禁內六官, 그와 관련된 淸讌閣 등 학술기구, 의례를 담당하는 禮賓省·殿中省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국용 창고인 大府[159]도 있었다. 여기에는 국왕 일상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內侍·宦官 등 近侍, 侍學·侍讀機構 등 文翰職이 宿直하면서 포진하였으니, 그들을 위한 宿直所도 함께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강도 이전의 송악 대궐은 궁성 영역에서 황성 바깥의 관청거리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국가통치를 보좌하기 위해 다양한 관부가 그 편의에 맞게 편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편제는 국왕의 본궐 상주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국왕이 본궐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배치 구조는 무의미해진다. 특히 왕실 생활을 지원하며 국왕의 일상사를 담당하는 궁성 영역의 기구들은 국왕이 그곳에 기거하지 않는다면 더욱 해당 일대에 존치될 이유는 사라진다.

---

15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典獄署.
156) 김창현, 2002 〈고려시대 개경 황성의 구조〉 《사학연구》 67, 34-35쪽,
157)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6, 官府 臺省.
158) 《宣和奉使高麗圖經》 권5, 宮殿1 王府.
159) 대부는 목종 12년(1009) 그것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나고 번져서 천추전이 불탔다는 데에서 궁성 안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권3, 목종 12년 1월 壬申; 《高麗史節要》 권2, 穆宗宣讓大王 12년 1월 壬申)

이제 본궐이 국왕의 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주요 관부의 배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자료상 한계로 전체를 규명하긴 분명 어려움이 있으나, 분산된 자료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개경 환도 이후 재배치된 관사의 배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궁성~황성 영역(B)에 배치되었던 최고 관부들부터 먼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충렬왕 원년(1275) 10월에 관제가 고쳐짐에 따라,[160] 中書省과 門下尙書省은 아울러 첨의부로, 추밀원은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로 개칭되었다.[161] 이에 앞서 충렬왕은 제상궁에 있었던 중서성을 사관으로 만들었으니, 관제가 개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첨의부 청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충렬왕대 관제 개편은 그 청사 재배치와도 무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때 그 위치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A-1) 공주가 賢聖寺에서 薨逝하자 왕이 僉議府로 거처를 옮겼다.[162]

위 기록은 충렬왕 23년(1297) 5월 壬午(2일) 제국대장공주가 현성사에서 훙서한 직후 왕이 첨의부로 거처를 옮긴 사실을 말해준다. 충렬왕은 재위 동안 빈번히 이궁·사제·사원 등으로 거처를 옮겼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그런데도 첨의부로 거처를 옮긴 사례는 이때 단 한 번만이 확인된다. 즉, 이는 특별한 이유로 첨의부를 거처로 삼은 사례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기록과 선후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A-2) 왕과 공주가 賢聖寺에 행차하여, 內庫의 쌀 100석을 내어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공주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163]

---

160)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10월 壬戌.
161) 《東文選》 권40, 表箋 告奏表; 《益齋亂藁》 권9上, 世家.
162) 《高麗史》 권31, 충렬왕 23년 5월 壬午. "公主薨于賢聖寺, 王移御僉議府."
163) 《高麗史》 권31, 충렬왕 23년 5월 癸酉. "王與公主, 幸賢聖寺, 發內庫米一百石, 賜窮民, 爲公主祈福."

A-3) 安平公主가 賢星寺에서 훙서하였다. 壽寧宮에 殯所를 차렸고, 온 나라의 士庶人에게 명하여 장사지낼 때까지 소복과 흰 모자를 착용하게 하였다.[164]

A-2)에서 알 수 있듯, 제국공주가 훙서하기 9일 전인 5월 癸酉일(12일)에 충렬왕과 공주는 현성사에 행차하여 내고의 쌀 100석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아픈 공주를 위해 복을 빌었다. 즉, 공주가 훙서하기 직전 충렬왕은 공주와 함께 현성사에 있었다. 공주가 훙서하자 충렬왕이 첨의부로 거처를 옮겼음은 공주가 훙서한 곳으로부터 避御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A-3)에서 보듯, 이때 공주의 빈소는 수령궁에 차려졌다. 고려의 경우 后妃의 장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조선 초의 경우를 미루어보면 발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빈전에서 장례의식이 진행되는 점은 국왕의 國喪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시작은 成服 즉, 상복을 입는 의식이며 여기에는 왕의 직계 가족과 종친뿐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국상 의식에 참여한다.[165] 이는 고려 성종대 明福宮大夫人 皇甫氏가 훙서한 다음날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賓堂에서 哭을 한 데에서도 확인된다.[166] 충렬왕은 첨의부로 거처를 옮기고 4일 후인 丙戌일(25일)에 왕은 다시 김방경 사제로 거처를 옮겼으니,[167] 적어도 첨의부에 머무르는 4일간은 수령궁에 차려진 공주의 빈소에서 국왕 이어에 수반되었을 신료들과 함께 공주의 장례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첨의부는 수령궁 인근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첨의부는 고려전기 심의 기능과 조칙 작성 등의 職掌을 전부 계승하지는 못했으나, '百官之長'으로 인식될 정도로 행정 최고기구의 위상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원 복속기에는 원과 공문을 주고받을 때 주요 수신처

---

164) 《高麗史》 권18, 禮6 凶禮 國恤, 충렬왕 23년 5월 壬午. "安平公主薨于賢聖寺. 殯于壽寧宮, 令國中士庶, 素衣白帽, 至葬."

165)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97-99쪽.

166) 《高麗史》 권3, 성종 2년 7월 壬戌.

167) 《高麗史》 권31, 충렬왕 23년 5월 丙戌.

로서 기능하며 고려를 대표하고 있었다.[168] 그 위상과 역할에 고려하더라도 정국운영의 중심 공간에 배치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첨의부와 밀직사의 청사가 같은 부지였던 사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밀직사는 왕명의 출납·숙위·군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일찍이 '直宿員吏職'으로서 근시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169] 그 기능을 고려하면, 이는 국왕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것이 사실상 자연스럽다. 관련하여 충선왕 즉위년(1298)에 왕이 옛 彦昌宮 터인 僉議密直司를 王宮으로 삼으라고 명한 사실이 주목된다.[170] 이때 언창궁 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첨의부와 밀직사의 청사가 같은 건물 내지는 인근에 배치되었음은 알 수 있다. 충렬왕 재위 동안 십자가 일대는 국왕의 중심 거주공간으로 기능하였으니, 밀직사와 함께 첨의부는 국왕 행동반경과 그리 멀지 않은 수령궁 인근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어사대의 후신인 감찰사 역시 인근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본래 궁성 남문인 승평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관도에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171] 그러나 감찰사의 경우 그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렬왕대 확대된 감찰사의 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렬왕 6년(1280) 감찰사는 衙時監檢 즉, 여러 관아의 勤怠를 감찰하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172] 고려전기 관리의 근무 평가 업무를 맡았던 부서는 吏部의 하위 기구였던 考功司였다.[173] 그런데 충렬왕대에 들어서

---

168) 충렬왕대 첨의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정훈, 2013 〈원간섭기 첨의부의 위상과 역할 - 충렬왕과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8, 214-222쪽 참고.

169) 《高麗史》 권16, 志30 百官1 密直司.

170) 《高麗史》 권33, 충선왕 즉위년 2월 己巳; 한편, 정은정은 해당 기사를 서긍이 《高麗圖經》에서 기술한 상서성·문하성·중서성의 위치를 상술한 기록과 비교하여, 僉議密直司使의 청사가 궁성 밖, 황성 안의 행정시설이 입지한 구역에 병렬적으로 분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정은정, 2015 〈13·14세기 개경 都內의 변화－侍奉·侍衛機構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1, 175쪽)

171) 尙書省, 在承休門內, 前有大門, 兩廊十餘間, 中爲堂三間. 卽令官治事之所, 政事之所自出也. 自尙書省之西, 春宮之南, 前開一門, 中列三位. 中爲中書省, 左曰門下省, 右曰樞密院, 卽國相·平章·知院治事之所.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6, 官府 臺省)

172) 《高麗史》 권29, 충렬왕 6년 10월 己丑.

173) 《高麗史》 권75, 志29 選擧3 銓注 문종 원년 8월.

면서 해당 업무가 감찰사로 이전하게 되었다.[174] 이에 더해 감찰사는 조정의 관료들뿐 아니라, 호종 신료의 예절 및 일반 민의 행실까지 규제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175] 더 후술하겠지만 이 무렵 주요 관부 청사들은 개경 중심부에 집중되고 있었고, 민가의 예절까지 감찰사의 감찰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청사 역시 황성 안쪽에 배치되는 것보다 첨의부·밀직사와 같이 개경 시내로 배치되는 것이 유리하다.[176] 이는 황성 내부에 배치되었던 군기고가 충렬왕 14년(1288) 사판궁에 설치된 데에서도 유추된다.[177] 사판궁 역시 수창궁에서 십자가 사이, 즉 개경 중심부에 있었다. 이를 보면, 강도 이전 궁성～황성 영역(B)에 배치되었던 관청들이 대부분 십자가 일대로 밀려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원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개경에 진입하거나 혹은 그 기능이 강화된 정치기구도 모두 십자가 인근에 배치된 사실이다. 征東行省은 물론 원의 제도를 수용하여 설치된 巡馬所, 원과의 관계로 인해 창졸 간의 일이 많아져 상설화된 都評議使司는 모두 황성 내외가 아닌 십자가 동서대로에 배치되었다. 그 설치연대 순서로 살펴보자.

순마소는 그 정확한 설치연대를 알 수 없으나, 순마소의 소속 직함인 巡軍이 충렬왕 4년 4월 최초의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이다.[178] 이는 원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원에서는 순마소를 설치하여 매일 저녁 巡行하면서 사람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179] 고려 조정에서도 이와 같은 감찰 기구를 도입하여 성

---

174) 이정훈, 2018 〈원간섭기 監察司의 지위와 역할 -충렬왕과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65), 14-20쪽.

175)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렬왕 9년 正月; 《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9년 2월.

176) 충선왕이 즉위했을 때 독자적으로 관제 개편을 강행하자, 丞相 完澤이 그를 지적하며 世祖 쿠빌라이 때에 고려가 참람하게 省·院·臺를 설치하였다가 그것을 혁파[罷]하고 곧 僉議府·密直司·監察司를 대신 세웠는데[改立] 지금 王謜(충선왕)이 멋대로 帝系를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元高麗記事》成宗皇帝 大德 3년(1299) 정월 10일) 이와 같은 언술은 고려전기 3성·추밀원·어사대와 같이 첨의부·밀직사·감찰사를 별도의 건물이면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시사한다.

177) 《高麗史》 권30, 충렬왕 14년 7월 壬寅; 이미 이 무렵부터 충렬왕은 사판궁보다 수령궁을 주요 거주별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니, 그 건물을 관사로 재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178) 《高麗史》권28, 충렬왕 4년 7월 壬辰.

내 치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때로는 국왕의 적대세력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담당하는 등 국왕의 군사력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80]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민가이면서도 국왕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편이 적절하다.

그 위치는 순마소 南里에 화재가 발생해 100여 호가 불에 타 사람과 가축이 많이 불에 타 죽었다는 기록을 통해 개경 번화가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181] 《중경지》에서는 그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巡邏軍官의 거처인 巡廳이 南大門 안 동쪽에 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182] 성내 치안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때로 국왕의 군사력으로 기능한 순마소는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십자가 중심부에 배치되었다.

都評議使司는 주지하다시피 충렬왕 5년(1279) 都兵馬使가 개편되면서 설치되었다.[183] 도평의사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상이하지만,[184] 이것이 도병마사와 宰樞會議가 통합되어 상설의 최고의결기구의 형태를 띠었음은 대체로 동의한다.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에 따르면 도평의사사는 큰일이 있으면 三府(門下府·三司·密直司)가 모여 의논하였으나 "일에 따라 설치되기도 하고 혁파"되었고, 공양왕 1년(1351) 都評議使司의 署宇이 새로 낙성되기 이전까지 정해진 청사[定署]도 없었다고 전한다.[185] 그러나 충렬왕 8년(1282) 兩府(僉議·密直)가 모두 기회를 엿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누구도 일을 모의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宰樞所 司存을 두어 6개월마다 교대하게 한 바가 있다.[186] 이는 도평의사사가 항시적으로 설치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렇다면 충렬왕 전반기에 이미 도평의사사의 청사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

179) 《元史》 권101, 世祖 中統 5년(1264).
180) 김낙진, 2017 〈高麗時代의 宿衛軍과 宿衛體制〉《사학연구》128, 75쪽.
181) 《高麗史》 권30, 충렬왕 17년 4월 戊辰.
182) 《中京誌》 권4, 官廨 巡廳.
183) 《高麗史》 권77, 志30 百官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184) 變太燮, 1969, 〈高麗都堂考〉《歷史敎育》 11·12合輯; 金甲童, 1994 〈高麗時代의 都兵馬使〉《歷史學報》 141; 金光哲, 1998 〈高麗後期 都評議使司 硏究〉《한국중세사연구》 5; 김창현, 1997 〈高麗後期 都評議使司 體制의 성립과 발전〉 《史學硏究》 54; 김광철, 2018 앞의 책, 413-450쪽.
185) 《東文選》 권77, 記高, 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186) 《高麗史節要》 권20, 忠烈王 8년 3월.

도평의사사는 《牧隱藁》에서 花園 동쪽의 韓渥(1274~1342)의 私家를 중수한 것이라는 기록을 통해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187] 花園은 고려 말의 離宮으로 泥峴에 조영되었다. 이현은 蘿葍山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松都誌》에는 이현을 개성부 관아 동쪽 2리로 기록한다.[188] 개성부 관아는 십자가 중심에 두어졌으니, 兩府의 최고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도 십자가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9]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 원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담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충렬왕이 행성승상에 임명된 충렬왕 6년(1280) 무렵 전후하여 개경 영토 안에 설치되었다. 이후 충렬왕 13년(1287) 정동행성은 원의 지방행정기구로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로써 개경 설치된 이것은 고려와 원 사이의 공식적인 연결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다.[190]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최고위직 겸직자로서 그곳에서 직접 업무를 보기도 하며, 그것의 최종 책임을 졌다.[191]

조선 태조 2년(1393) 정동행성의 관아를 수리하여 太平館으로 개칭한 사실을 통해 정동행성은 태평관과 같은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192] 여러 지리지에서도 태평관은 本司 곧 개성부 관아 서편에 있었으며, 고려 때 征東省이었다고 기록한다.[193] 즉, 정동행성은 십자가 서쪽으로, 십자가에

---

187) 《牧隱藁》 권20, 詩 合坐寶源庫, 庫故政丞韓公諱渥故宅, 先王所嘗御, 而穡初拜密直處也, 今十七年矣, 復來合坐於此, 有感于懷, 吟成一首; 이외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輿地志》·《松京廣攷》에서도 都評議使司는 花園 동쪽에 위치한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5, 開城府 下; 《東國輿地志》 권1, 京都 開城府;《松京廣攷》 권5, 第宅)

188) 《高麗史》 권44, 공민왕 22년 2월; 《松都誌》권2, 山川.

189) 정은정은 이 시기 도평의사사 위치를 《高麗圖經》에서 묘사하는 都省 尙書省의 국가 중대사를 협의하는 3칸 규모의 堂으로 보았다. (정은정, 2015 앞의 논문, 174쪽 각주 46번) 그러나 몽골과 전쟁으로 본궐이 모두 소실되기 이전 시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이 무렵 관사의 위치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한다.

190) 정동행성의 성격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성과는 전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高炳翊, 1970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대학교출판;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硏究》, 一潮閣; 고명수, 2015 〈征東行省의 置廢경위와 성격변화 再考〉《한국중세사연구》 43, 322-323쪽 참고.

191) 《高麗史》 권29, 충렬왕 9년 6월 癸未; 권31, 충렬왕 25년 10월 丙寅; 권33, 충선왕 즉위년 2월 戊午.

192)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 1월 乙亥.

서 선의문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궁성~황성 영역의 핵심 관부는 물론 원과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 개경에 진입한 중요한 기구들은 대부분 본궐 일대가 아닌 개경의 십자가 동서대로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본궐의 모든 청사가 새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궁성 영역(A)과 광화문 바깥의 관청거리(C)의 일부 청사는 기존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軍簿司重新廳事記〉와 〈禁內廳事重興記〉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기록들은 이 무렵 청사 재배치 여부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1) (a) **옛날에는 廨宇(軍簿司)가 王宮 동쪽에 있었는데**, 權臣이 임금을 옹위하여 江華로 들어 가버린 후부터 **궁실과 관사가 자갈 더미와 풀숲의 빈터로 된 것이 39년이었다.** 至元 庚午年(1270)에 황제의 威靈에 의거하여 舊京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b) **그때 部의 貳官인 奇洪碩 公이 그 옛터[舊基]를 다스려서 중건하였다.** (c) **이때부터 天曆 己巳年(1329)에 이르기까지 또 60년의 오랜 기간을 지냈는데, 그사이에 계속해서 수리한 자가 없었으니,** 기둥·서까래·처마·도리 같은 것이 어찌 썩고 꺾여져서 날마다 기울어지고 허물어지지 않았겠는가. 鷹揚上將 金就起 侯가 마침 군부사의 貳官이 되어서 처음 부임하는 날에 郞署의 관리와 軍衛의 將士가 차례로 나와 하례하고 물러나니, 김후가 다시 나오게 하여 廳事를 돌아다보고 탄식하며 낭사에게 말하기를 … 이에 명령을 내려 중창하게 하고, 이어 佐郞 金玩에게 위임하여 그 역사를 강독하게 하였다. (d) **金君이 이에 公庫의 남은 재물을 내어 먼저 목재와 기와를 사들였다.**[194]

19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東國輿地志》 권1, 京都 開城府; 《中京誌》 권6, 橋梁.

194) 《東文選》 권68, 軍簿司重新廳事記. 舊有廨宇在王宮之東, 自權臣擁主, 卷入江華以後, 宮室官廬, 同爲瓦礫蓁莽之墟者, 三十有九年. 至元庚午, 克仗皇靈, 獲復舊京, 時有部貳奇公洪碩, 治其故地而重營之. 自此至天曆己巳, 又閱六十年之久, 其間未有紹繼而能繕理者, 則棟榱櫚楹, 胡得不腐敗摧折, 而日就傾圮哉."鷹揚上將金侯就起, 適貳于司, 始莅之日, 郞署官吏軍衛將士, 以次進賀而退, 侯復進之, 顧視廳事, 而喟然

B-2) 國初에 관직을 설치할 때 6局을 대궐에 두어 文翰을 맡게 하고, 翰林·史館·秘書·寶文·同文·留院이라 하였는데, 사관과 한림이 으뜸이 되었다. (e) **서울이 옮겨감으로부터 王宮과 官廳이 파괴되어 남은 것이 없어졌는데** 경오년에 옛 서울로 돌아온 뒤에 경영하여 건축할 겨를이 없었다. (f) **文翰官이 하루라도 그 처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옛 議政之堂을 하사**하였는데, (g) **지은 지가 60년이 넘기 때문에 퇴락하고 무너지게 되었어도 수축하는 자가 없었다.** 元統 癸酉年(1333, 충숙왕 복위2) 6월 어느 날 禁內의 諸君이 … 이에 公廨의 돈[錢] 약간의 緡을 받았으나,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여 人家에서 다시 돈을 빌린 다음에 즉시 재목과 기와를 사들였다. 그리고는 (h) **정부에 人夫를 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적으로 工匠을 고용하는 한편, 각자 집안의 하인들을 부역시키면서 각자 먹이고 각자 감독**하였다.[195]

(a)·(e)에서 보이듯, 강화로 천도하고 황성 바깥의 관도는 물론 금내 청사마저 모두 파괴되어 남은 것이 없어졌다. 그러나 (b)·(f)를 통해 환도 직후 군부사의 貳館인 기홍석과 당시 文翰官이 각각 군부사의 '舊基'와 옛 '議政之堂'에 청사의 처소를 두어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의정지당'은 서긍이 묘사한 궁성의 편전 옆에 놓인 大臣들이 논의하는 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196] 기존의 터에 청사를 중수한 것이었다면, 군부사는 황성 바깥의 관청거리에, 금내관은 궁성 영역에 존치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c)·(g)에서 말해주듯, 군부사와 금내청사 모두 환도 이후 약 60년이 지난 1329년(충숙왕 16)~1333년(충숙왕 복위2)까지 해당

謂郞署曰, … 於是出令新之, 仍委佐郞金君玩董其役. 金君乃出公庫羨財, 先市材瓦.

195) 《東文選》 권70, 禁內廳事重興記. 國初設官, 置六局禁中, 爲文翰職曰翰林, 曰史館, 曰秘書·寶文·同文·留院, 而史翰爲之冠. 自國都遷徙, 王宮官府破壞無遺, 庚午復都之後, 未遑營構. 以文翰官不可一日無其所, 乃賜舊議政之堂, 因仍餘六十年, 日趨頹圮, 未有能修葺者. 元統癸酉六月有日, 禁內諸君 … 於是出公廨錢若干緡, 不足則借錢人家, 立市材瓦. 請夫於官不得則私雇工匠, 各役家僮, 自食之而自督之.

196) 서긍은 국왕이 便殿에서 政事를 보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大臣들은 5일에 한 번 국왕을 알현하는데 '議政之堂'이 따로 있다고 하였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5, 宮殿1 王府)

청사를 수리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환도 직후나 60년이 지난 시점 모두 해당 청사에 대한 보수공사는 중앙 정부가 아닌 관인 개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물론 그 공사 과정에서 公庫나 公廨의 지원을 일부 받기는 했으나, 人家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또 정부에 인부를 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하니 힘없는 屬官들이 가진 것을 모아 청사를 수리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197] 당시 관청 중에 폐해져 중건되지 못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니,[198] 환도 이후 본궐에 남아있는 관부 중 파괴되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비단 두 사례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 정부의 황성 안팎 청사에 대한 무관심은 당시 공주궁을 포함한 여러 이궁을 짓는데 수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재정적 상황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관부 청사들이 십자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다만 재정적 원인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당시 본궐 안팎에 남아있던 청사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사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전기 상서육부의 기능은 이미 무신집권기부터 차츰 그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고 있었다. 그러다 충렬왕 원년(1275) 육부가 4司 즉, 典理司·軍簿司·版圖司·典法司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은 더욱 위축되었다. 한편, 정규 관서보다 도감의 업무가 증가하고 또 중요해지면서, 도감에 판사직이 설치될 정도로 정규 관청을 넘어서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199] 도평의사사가 대표적으로 그것이 상설기구화되자 축소된 4사의 기능과 권한은 더욱 약화하였다.[200]

이와 함께 본래 육부 고유의 기능은 점차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그를 대체하는 제도 및 청사가 새로 설치되는 추세였다. 예컨대 전

---

197) 《東文選》 권70, 禁內廳事重興記. “顧玆國史所在, 文翰所居, 官不爲修, 而區區屬官, 竭己有以新之, 當路者能不愧歟.”

198) 《東文選》 권68, 軍簿司重新廳事記. “官中廢而不擧者, 非止一事.”

199) 이정훈, 2000 〈高麗時代 都監의 구조와 기능〉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45쪽.

200) 變太燮,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26-33쪽.

리사와 군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무관의 銓注 권한은 일찍이 政房으로 흡수되다가, 충렬왕대에 이르면 禁中에 연동된다.[201] 이부의 하위 기구로서 관리 考課를 담당하는 考功司의 역할이 감찰사에 이전되었음은 언급한 바이다. 당시 관인들조차도 전리사와 군부사에 대해 "古之政府"라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202] 그 위상은 고려전기의 모습과는 달랐다.

한편, 형부의 후신인 전법사는 개경 환도 이후에도 刑獄과 聽訟을 관장하고 비리를 糾正하는 등[203] 나름 독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마소가 시내 중심에 새로 설치되면서 전법사 기능의 상당 부분은 순마소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전기 형부 맞은편에 죄수를 담당하는 전옥서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마소에도 巡馬獄을 두어 죄수의 형옥을 관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204] 다시 말해, 군부사를 비롯한 4사는 기능 면에서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일부 기능은 십자가 일대에 배치된 관부에 이전되고 있었다. 본궐에 존치한 청사들은 그 위치는 유지하였더라도 기능과 위상 면에서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금내 청사를 포함한 궁성 영역의 청사에도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경 환도 이후 고려국왕들은 실질적으로 본궐에 거처하지 않았다. 궁성 안에 배치된 기구들의 주된 역할은 기본적으로 왕실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본궐이 왕실 구성원의 주 거주처로서 기능하지 않게 된 시점에, 궁성 영역의 청사가 기존 위치를 유지했더라도 그 기능이 이전과 같았을 리는 없다. 궁성 영역에 있던 국용 창고인 大府의 경우, 충렬왕 5년(1279) 대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民家 800여戶가 불에 탄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일찍이 개경 시내 중심부로 이동했다.[2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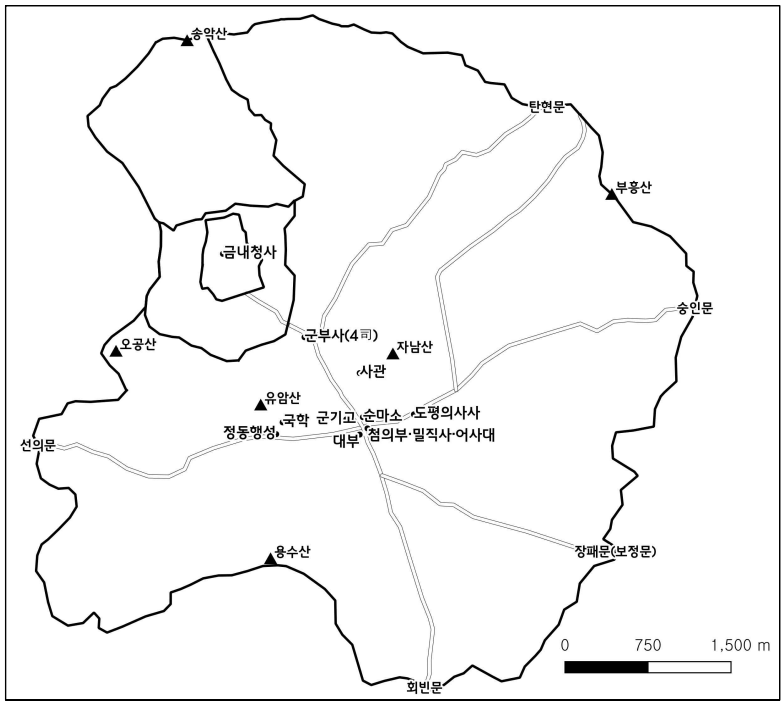
201) 《高麗史》 권110, 열전 권23 諸臣 李齊賢; 《高麗史》 권106, 列傳 19, 諸臣 朴恒.

202) 《淡庵逸集》 권2, 疏箚 論選法箚子. "**典理·軍簿, 古之政府也.** 古者文武異路, 世官不相交. 文資則典理, 武資則軍簿, 各任銓注宜矣. 自毅王以後, 文武世通, 官亦交授. 故兩司政官於大內別廳, 一會議政, 宜當文武官資一時注. 此所謂"政貴變通, 酌古準今."

203) 《高麗史》 권29, 충렬왕 5년 3월 癸酉.

204)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22년 2월.

205) 《高麗史》 권28, 충렬왕 3년 3월 庚子.



[그림 5] 충렬왕대 주요 官府 배치도

그런데 궁성 영역에 숙직·입직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왕 근거리에서 국가통치를 보좌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그 역할을 고려하면 청사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관원 일부가 국왕 이어에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민왕대 趙日新이 당시 왕이 머무르던 星入洞 時御宮을 포위하고 宿直하던 判密直司事 崔德林, 上護軍 鄭桓, 親從護軍 鄭乙祥을 죽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206] 국왕 곁에서 시위·시봉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왕의 행동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창왕 원년> 정월 藝文·春秋館·典校寺에서 상언하기를, "예문관은 詞命을 담당하고, 춘추관은 記事를 담당하며, 전교시는 祀典을 담당하여 축문을 고치니,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先王께서는 禁中에 관원을 두고 禁內라고 칭하였는데, 지

206)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원년 9월 己亥.

금 <금중> 바깥에 館寺를 두는 것은 선왕이 관직을 설치한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史翰 2인, 典校 1인, 正字 1인을 <금중> 안에 入直하게 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소서."[207]

위에서 보듯, 예문·춘추관·전교시는 그 직책의 중요성에도 館寺가 금중 바깥에 있음을 지적하며, 금내관의 소속 관원 일부가 종래대로 금중에 입직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당시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본궐이 완전히 소실된 이후이기에, 이때 금중을 궁성 안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금중은 사전적으로 군주가 머무는 宮內를 뜻하는 동시에 외부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군주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08] 즉, 금중은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왕과의 면대가 엄격히 통제된 군주의 사적 영역을 의미한다. 강도 이전 국왕의 주 거주처가 본궐이었던 때에 금중은 궁성 영역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환도 이후 본궐은 주 거주처로서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 무렵 금중의 위치는 당시 국왕의 거처를 고려해야 한다. 홍건적 침입 직후 공민왕이 德寧公主의 집에 머물면서, 頭裏速古赤, 子弟衛에게 금중을 侍衛하도록 한 데에서 알 수 있듯,[209] 금중은 당시 국왕 거처에 따라 그 영역이 달라진다.

따라서 위 기록에서 예문·춘추관·전교시가 금중에 입직하도록 요구한 것은, 금내관 소속 관원 일부를 국왕 거처에 입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환도 이후 왕실의 생활을 담당하던 궁성 영역의 기구는, 국왕 이어에 수반되는 시봉원들과 함께 소속 관원 일부가 '금중'에

---

207) 《高麗史》 권137, 列傳15 창왕 원년 1월. 藝文春秋館·典校寺上言, "藝文掌詞命, 春秋掌記事, 典校掌祀典而修祝文, 此三者, 皆重事也. 是以, 先王置官禁中, 仍號禁內, 而今館寺在外, 非先王設官之意也. 願自今, 以史翰二人, 典校一人, 正字一人, 入直于內, 以復舊制."

208) 1. 禁令所及範圍之內 2. 指帝王所居宮內 (《漢語大詞典》, 1998,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香港: 商務印書館); 고려전기에도 금중은 주로 宮城 영역을 가리켰지만, 특히 국왕에게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영역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컨대 예종대 淸燕閣이 禁中에 있어 學士가 直宿 出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예종은 그 옆에 별도로 寶文閣과 精義堂을 설치해주었다. (《高麗史》 권30, 志百30 官1 寶文閣; 《高麗史節要》 권8, 예종 11년 11월) 궁성 영역에 출입이 가능한 학사들조차도 금중의 청연각은 출입하기 번거로웠던 것이다.

209) 《高麗史》 권44, 공민왕 22년 1월 乙丑.

입직하는 방식으로 국왕 통치를 보좌하는 직임을 수행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렵 금중에 숙직하며 국왕을 시위하거나 국왕 통치를 보좌하는 조직이 점차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충렬왕 초반부터 몽골의 怯薛제도의 도입으로 국왕 금중에 입직하는 근시 기구의 규모는 종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충렬왕은 즉위 초반부터 禿魯花로서 원에서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로 忽赤을 조직하여 番을 나누어 금중 숙위를 맡게 하였으며, 원 황제에게 요청하여 鷹坊을 설치하였다.[210] 응방은 매사냥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기능이긴 했으나, 홀적과 응방은 기본적으로 몽골의 친위군 조직 제도로 국왕 숙위가 주 업무였다.[211] 본래 소수의 禁軍을 제외하고 국왕 內殿·寢殿 영역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과 달리,[212] 충렬왕대 이르러 국왕 사적 영역에 깊숙이 입직하며 왕을 시위하는 조직이 추가로 도입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중에 진입하며 국왕 통치를 보좌하게 된 기구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정방·必闍赤·申聞色이 그들이다. 정방은 무신집권기에 최씨 집권자가 그들 사제에 설치한 것으로, 최씨정권의 마지막 실력자인 崔竑가 제거된 이후에도 유지되어 고종 45년 편전으로 옮겨지다가 충렬왕대에 이르면 정방원들이 금중에서 숙직하며 전주를 행하는 것이 상례가 된다.[213] 비칙치는 상시 금중에 모여 국가 기무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들이었으며, 신문색은 이때 결정된 사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직된 것이었다. 모두 내료로 구성되었던 신문색과 달리 비칙치는 재상급 관료부터 하급 관료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214]

---

210) 《高麗史》 권82, 志82 兵2 宿衛; 권123, 列傳36 嬖幸1 印侯.

211) 權寧國, 1995 〈高麗後期 軍事制度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0-57쪽; 李仁在 2000 〈高麗後期 鷹坊의 設置와 運營〉, 《(河炫綱敎授定年紀念論叢)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 혜안, 486쪽.

212) 정은정, 2015 앞의 논문 187-1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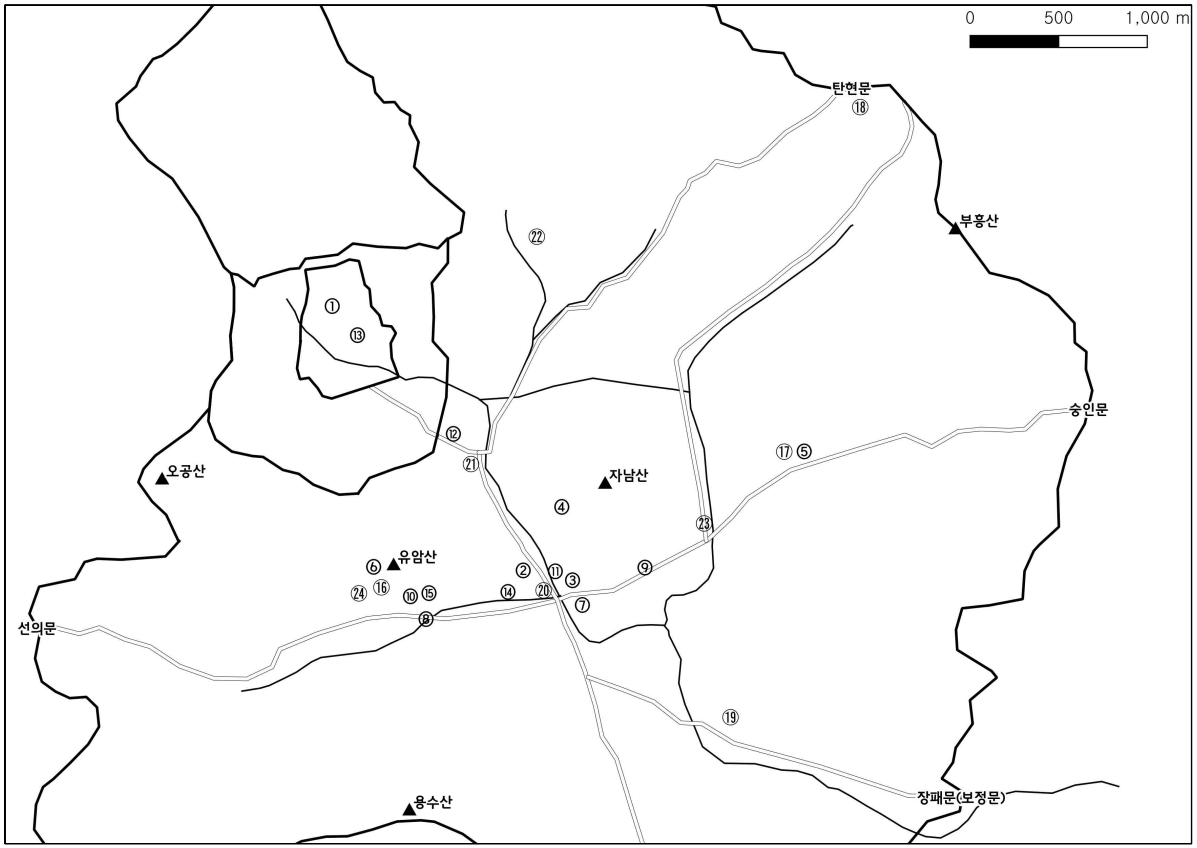
213) 《高麗史》 권110, 열전 권23 諸臣 李齊賢; 《高麗史》 권106, 列傳 19, 諸臣 朴恒. “忠烈朝, 拜承宣, 掌銓注. 先是, 政房銓注, 時出宿其家, 干謁塡門, 恒始詮注訖, 乃出禁中, 後人遂以爲常.”; 고려후기 정방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김창현, 1994 〈고려후기 政房의 구성과 성격〉 《韓國史硏究》 87, 2-27쪽 참고.

214) 충렬왕 4년 10월의 비칙치는 재추가 2명으로 첨의부의 하위재상이 1명, 밀직사의 하위재상이 1명으로 고위 재상은 배제되었다. 재상 밑에는 승지가 2명, 실무진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김창현, 1994 앞의 논문, 13-14쪽)

이처럼 충렬왕은 금중에 숙직하며 군주의 신변을 보호하는 시위 조직을 확대하고, 금중에 상시 입직하여 국왕 통치를 보좌하는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갔다. 외형적으로 보면, 국왕의 행동반경에서 활동하는 근시 조직이 중층적으로 국왕 거처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국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당시 개경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배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왕의 생활공간이 궁성·황성 이중의 성곽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군주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친위 세력을 국왕 거소에 중층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와 함께 빈번히 거처를 옮기며 이궁·사제·사원 등을 보조공간으로 활용하곤 했으니, 국왕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자들의 역할과 위상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충렬왕대 본격적으로 재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개경의 모습은 종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다. 외형적으로는 십자가를 중축으로 하여 관청 거리가 형성되어 가는 한편, 국왕 곁에서 통치를 보좌하는 근시 기구는 점차 확대되어 금중 즉 국왕의 거주공간을 중층적으로 둘러쌓는 형태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개경 환도 이후 본래 황성 안팎에 집중·포진되어 있었던 관사 배치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첨의부·밀직사와 같은 핵심 관부는 십자가 중심부에 재배치되었으며, 원과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정치·외교에 있어서 중추적 기능을 하게 된 征東行省와 都評議使司는 각각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서에 배치되었다. 본궐 안팎의 청사들 일부는 여전히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이들의 기능은 환도 이후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종래의 권한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한편, 본래 궁성 영역에 분포하던 국왕을 시위·시봉하는 근시 기구는 국왕 행동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금중에 입직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와 함께 忽赤·鷹坊·政房·必闍赤·申聞色 등 금중에 숙직·입직하며 국왕의 정국운영을 보좌하는 기구들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이들이 국왕 거처를 중층적으로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① 본궐, 강안전
② 사판궁, 군기고
③ 수령궁(죽판궁), 민천사
④ 남산궁, 사관
⑤ 이현 신궁
⑥ 덕자궁
⑦ 첨의부·밀직사·어사대
⑧ 정동행성
⑨ 도평의사사
⑩ 국학
⑪ 순마소
⑫ 4사(司)
⑬ 금내 청사
⑭ 김방경 집
⑮ 안향 집, 권부 집
⑯ 장순룡 집
⑰ 숙창원비, 김문연 집
⑱ 현성사
⑲ 묘련사
⑳ 보제사
㉑ 흥국사
㉒ 왕륜사
㉓ 묘각사
㉔ 봉은사

[그림 6] 충렬왕대 개경 都內 지도

맺음말

본 논문은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이 의례 공간으로 축소된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충렬왕대를 중심으로, 국왕의 주 거주처 파악을 시도하였다. 왕조 시대에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은 곧 국왕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정무를 본 공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도 이후 전개된 고려 왕실의 거주공간 변화가 개경의 경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경 환도 직후 十字街 일대는 고려 왕실의 중심 거주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일찍이 개경 중심부로서 市廛이 밀집한 상업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이곳은 고려전기 이래 국왕의 보조공간으로 기능하였으며, 무신집권기에는 집권 무신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환도 이후 이어진 열악한 재정적 상황은 본궐 복원을 지연시키는 한편, 십자가 일대는 고려 왕실 주도하에 국정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 복속기 동안 본궐이 의례 공간으로 기능하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둘째, 본격적으로 개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 충렬왕대 고려 왕실의 거주공간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고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경은 그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갔다. 당시 고려 조정은 본궐 중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한편, 고려에 下嫁한 몽골 공주이자 고려국왕의 제1 후비인 齊國大長公主를 위한 수령궁(죽판궁)을 개경 중앙에 대규모로 증축하였다. 이는 원의 후원으로 국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충렬왕에게도 몽골 황실의 駙馬 지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이후 충렬왕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감에 따라 수령궁은 '왕궁'의 의미가 더해지고, 점진적으로 본궐의 기능을 흡수해갔다.

이와 함께 사제와 사원이 적극적으로 국왕의 보조적 통치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일대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당시 국내에 세력기반을 형성해갈 필요가 있었던 충렬왕은 유력 신료들에게 상

당한 경제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화려하게 조영된 고관 사제는 국왕의 보조공간으로 빈번히 활용되었다. 한편, 개경 일대의 사원들은 기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와중에, 개경 중심부에 자리한 사원의 위상은 점차 높아져 갔다. 개경은 고려 왕실의 주요 거주공간이 된 십자가를 중축으로 하여 변화를 맞이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높이 세워진 涼樓는 새로운 개경의 중심을 상징하였다.

셋째, 국왕의 주 활동공간이 십자가 일대로 집중됨에 따라 핵심 官府 및 국왕 곁에서 통치를 보좌하는 侍奉 기구 배치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국왕 편의에 맞게 황성 안팎에 배치되었던 관부 청사는, 국왕 활동 반경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점차 그 기능은 축소되어 갔다. 반면, 원 복속기에 들어서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정치기구들은 다시 국왕 편의에 맞게 십자가 일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와 함께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侍衛 기구와 통치를 보좌하는 侍奉 기구는 점차 비대해져 갔다. 국왕 통치공간이 궁성·황성 이중 성곽에서 벗어나면서, 近侍 기구의 확대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로써 외형적으로 개경은 십자가 인근에 핵심 관부들이 밀집하고, 국왕의 거처를 중심으로 근시 기구가 중층적으로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이로써 개경 환도 이후 의례 공간으로 축소된 본궐을 대신해 십자가 일대가 고려 왕실 구성원 및 조정 관료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부상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충렬왕대 이루어진 공간적 재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변화한 공간구조에서 궁궐·사제·사원·관부 간의 긴밀한 상호 연동 관계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궐 밖에서 행해진 국정운영체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국정운영이 행해지는 공간구조의 변화는 국정운영 방식에도 일정한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잦은 이궁·후비궁·사제로의 국왕 이어 양상은 고려 말까지 이어지며, 근시 기구의 위상은 점차 확대되어간다. 이는 국왕 통치가 행해지는 공간구조의 변화와도 무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와 의문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사료

1. 연대기

《高麗史》《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元史》

2. 문집

《東國李相國全集》
《東文選》
《牧隱文藁》
《陽村集》
《櫟翁稗說》
《帝王韻紀》

3. 지리지

《松京廣攷》
《松都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中京誌》

4. 기타

《淡庵逸集》
《動安居士行錄》
《賓王錄》
《宣和奉使高麗圖經》
《帝王韻紀》

《治平要覽》
《晦軒先生實記》

Ⅱ. 연구논저

1. 단행본

高炳翊, 1970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대학교출판
고유섭, 2017 《松都의 古蹟》, 열화당
김광철, 2018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이념》, 신서원
_____,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_____, 2017 《고려 도읍과 동아시아 도읍의 비교연구》, 새문사
_____, 2017 《고려후기 정치사》, 경인문화사
박종진, 2022 《개경: 고려왕조의 수도》, 눌와
邊太燮,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李仁在, 2000 《(河炫綱敎授定年紀念論叢)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정은정, 2018 《고려 開京·京畿 연구》, 혜안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楊寬 著, 최재영 역, 2019 《중국 고대 도성제도사》, 세창출판사

《漢語大詞典》, 1998,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香港: 商務印書館

2. 논문

강호선, 〈고려시대 개경의 흥국사(興國寺)〉《한국중세사연구》 64
고명수, 2015 〈征東行省의 置廢경위와 성격변화 再考〉《한국중세사연구》 43,
권순형, 2018 〈제국대장공주의 고려 왕비로서의 삶〉《여성과 역사》28
權寧國, 1995 〈高麗後期 軍事制度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권희경, 2003 〈寫經院과 廉承益 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7권본 1부〉《한국기록관리학회지》3(1)

金光哲, 1998 〈高麗後期 都評議使司 硏究〉 《한국중세사연구》 5
김낙진, 2017 〈高麗時代의 宿衛軍과 宿衛體制〉《사학연구》128
金甲童, 1994 〈高麗時代의 都兵馬使〉《歷史學報》 141
김동욱, 1998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건축역사연구》15
김보광, 2012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제 도입과 그 의도〉 《사학연구》107
김수연, 2019 〈고려시대의 普濟寺(演福寺)의 佛事 성격 변화〉《이화사학연구》59
김용선,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김창현, 1994 〈고려후기 政房의 구성과 성격〉 《韓國史硏究》 87
_____, 1997 〈高麗後期 都評議使司 體制의 성립과 발전〉 《史學硏究》 54
_____, 1999 〈고려 開京의 궁궐〉 《사학연구》 57
_____, 2004 〈고려 의종의 이어(移御)와 그에 담긴 관념〉《역사와 현실》53
김현라, 2008 〈고려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지역과 역사》23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_____, 2002 〈몽골제국사 연구와 『집사』〉 《경북사학》 25
박윤진, 1998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韓國史學報》 3·4호
朴京安, 1985 〈高麗後期의 陳田開墾과 賜田〉 《學林》 7
박재우, 2022 〈고려 최씨정권의 私第 경영과 성격〉《歷史學報》 253
박종진, 1983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
_____, 1999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 《역사와현실》 34
_____, 2010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2(2000~2009)〉《역사와현실》 75
變太燮, 1969, 〈高麗都堂考〉《歷史敎育》 11·12合輯
徐聖鎬, 1994 〈韓國中世의 都市와 社會〉《東洋都市史 속의 서울》,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_____,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38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역사민속학》 45
신혜영, 2021 〈고려 전기 후비의 생활공간과 의미〉 《여성과 역사》35
우성훈, 이상해, 2006 〈고려정궁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47
우성훈, 2010 〈고려시대 개경 시장의 도시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6(5)
李益柱, 1987,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_____, 1996 〈高麗 對蒙抗爭期 講和論의 硏究〉 《歷史學報》 151
_____, 1996 〈高麗·元 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 1988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한국사론》18
이정란, 2012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책봉과 그 의미〉《한국인물사연구》18
이정훈, 2000 〈高麗時代 都監의 구조와 기능〉《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_____, 2013〈원간섭기 첨의부의 위상과 역할 - 충렬왕과 충선왕대를 중심으로〉《역사와현실》88
_____, 2018 〈원간섭기 監察司의 지위와 역할 -충렬왕과 충선왕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65)
장지연, 2006 〈고려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역사와 현실》 60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硏究》, 一潮閣
전경숙, 2018 〈고려시대 국왕의 개경 절 行幸과 도성의 공간 활용〉 《역사와 담론》85

정은정, 2009 〈고려시대 開京의 도시변화와 京畿制의 추이〉,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 漢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 《한국중세사연구》49

_____, 2015 〈13·14세기 개경 都內의 변화－侍奉·侍衛機構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41

_____, 2021 〈고려 朝儀 구성과 정비〉 《역사문화연구》80

_____, 2022 〈10~13세기 初 朝儀 운영〉 《사학연구》146

尹紀燁, 2004〈元干涉期 元皇室의 願堂이 된 高麗寺院〉 《대동문화연구》46

전룡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력사과학》 2·3

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98

최종석,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한국학연구)》59

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方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38

_____,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황향주, 2022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野榮治, 2004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對明遙拜儀禮の創出－〉 《九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21

부표 1 충렬왕대 시간별 거처·기간 추정

장소	왕력	날짜(음)	기간	이후 移御	비고
沙坂宮	즉위	9월 12일-11월 5일	1개월	竹坂宮	
竹坂宮	즉위	11월 5일-12월 13일	α	沙坂宮	
沙坂宮	즉위-1	12월 13일-1월 13일	1개월	竹坂宮	
竹坂宮	1	1월 13일-5월 9일	3개월	朴璆 第	
朴璆 第	1	5월 9일-7월 7일	α	承德府	
承德府	1	7월7일-8월 5일	α	竹坂宮	
竹坂宮	1	8월 5일-8월 20일	α(15)	賢聖寺	
賢聖寺	1	8월 20일-9월 6일	α	沙坂宮	
沙坂宮	1-3	9월 6일-7월 9일	20개월	金方慶 第	
金方慶 第	3	7월 9일-7월 19일	α(10)	正因寺	避病 (공주 발병)
正因寺	3	7월 19일-7월 27일	α(8)	承德府	
承德府	3	7월 27일-?	α	金忻 第	
金忻 第	3	7월 27일-9월 21일	3개월	宮	避病 (국왕 발병)
宮	3	9월 21일-11월 12일	1개월	李貞 第	沙坂宮으로 추정
李貞 第	3	11월 17일-11월 27일	α(10)	本闕	
本闕	3	11월 27일-12월 12일	α	沙坂宮	
沙坂宮	3-4	12월 12일-4월 1일	3개월	元 入朝	
元 入朝 (5개월)					
沙坂宮	4	9월 24일-11월 21일	1개월	李貞 家	친조 이후
李貞 家	4	11월 21일-12월 13일	α	元 入朝	
元 入朝 (2개월)					
壽康宮	5	3월 20일-4월 28일	α	本闕 舍那寺	
本闕 舍那寺	5	4월 28일-4월 30일	α(2)	賢聖寺	
賢聖寺	5	4월 30일-5월 22일	α	李貞 家	
李貞 家	5	5월 22일-?	α	水口觀音寺	避病 (공주 발병)
水口觀音寺	5	?-6월 4일	α	張舜龍 家	
張舜龍 家	5	6월 4일-6월 27일	α(23)	壽康宮	
壽康宮	5	6월 27일-9월 24일	2개월	張舜龍 家	
張舜龍 家	5	9월 24일-10월 20일	α	沙坂宮	
沙坂宮	5-6	10월 20일-1월 11일	2개월	本闕	
本闕	6	1월 11일-2월 16일	1개월	壽康宮	
壽康宮	6	2월 16일-2월 23일	α(7)	沙坂宮	
沙坂宮	6	2월 23일-7월 4일	4개월	廉承益 第	
廉承益 第	6	7월 4일-7월 25일	α(21)	沙坂宮	
沙坂宮	6	7월 25일-8월 2일	α	元 入朝	
元 入朝 (2개월)					
沙坂宮	6-7	9월 27일-4월 1일	6개월	合浦	
合浦/일본 원정 (4개월)					

壽康宮	7	7월 21일-8월 4일	α(15)		
慶尙道 (1개월)					
沙坂宮	7-8	윤8월 28일-6월 22일	9개월	神孝寺	
神孝寺	8	6월 22일-6월 28일	α(6)	許珙 第	
許珙 第	8	6월 28일-7월 7일	α	齊安侯 第	避病 (공주 발병)
齊安侯 第	8	7월 7일-9월 19일	2개월	忠淸道	避病 (공주 발병)
忠淸道 (9월-10월)					
알수없음	8-9	10월 7일-1월 21일	?	金方慶 第	10월 8일 장순룡 第 幸
金方慶 第	9	1월 21일-8월 7일	6개월	齊安公 第	避病 (국왕 발병)
齊安公 第	9	8월 7일-10월 4일	1개월	南京	
南京 (10월-1월?)					
알수없음	10	1월	?	齊安公 第	
齊安公 第	10	1월 24일-2월11일	1개월	宮	
宮	10	2월 11일-2월 18일	α(7)	齊安公 第	沙坂宮으로 추정
齊安公 第	10	2월 18일-3월 16일	α	元 入朝	
元 入朝 (3월-9월)					
齊安公 第	10-11	9월 10일-1월 12일	2개월	平州	
平州 (1월 10일-1월 24일)					
알수없음	11	1월 24일-5월 13일	3개월	神孝寺	齊安公 第로 추정
神孝寺	11-12	5월 13일-2월	8개월	新宮(壽寧宮)	
壽寧宮	12-13	2월-2월 9일	11개월	康安殿	
康安殿	13	2월 9일-4월 27일	2개월	神孝寺	
神孝寺	13	4월 27일-6월 17일	1개월	新宮(壽寧宮)	
元 入朝 (6월-12월)					
壽寧宮	13-14	12월 10일-8월 10일	8개월	車信 第	세자가 알현
車信 第	14-15	8월 10일-2월 27일	6개월	孝信寺	
孝信寺	15	2월 27일-윤10월 25일	7개월	妙蓮寺	
妙蓮寺	15	윤10월 25일-11월 7일	1개월	元 入朝	
元 入朝 (11월-3월)					
알수없음	16	3월 24일-10월 18일	6개월	王輪寺	
王輪寺	16	10월 18일-10월 20일	α(2)	妙蓮寺	
妙蓮寺	16	10월 20일-12월 18일	1개월	禪源寺	
禪源寺	16-17	12월 18일-9월 14일	8개월	長峯 新宮	나얀 침입 (강화 천도)
長峯 新宮	17-18	9월 14일-1월 27일	3개월	壽寧宮	
壽寧宮	18	1월 27일-7월 27일	6개월	元 入朝	1개월
元 入朝(7월-8월)					
壽寧宮	18	9월 1일-11월 1일	2개월	妙蓮寺	
妙蓮寺	18	11월 1일-11월 16일	α(5)	安珦 第	

安珦 第	18	11월 16일-11월 27일	α(11)	金方慶 第	避病 (국왕 발병)
金方慶 第	18-19	11월 27일-3월 10일	3개월	安珦 第	避病 (국왕 발병)
安珦 第	19	3월 10일-10월 17일	6개월	元 入朝	避病 (공주 발병)
元 入朝(10월-8월)					
壽寧宮	19-22	8월 7일-9월 21일	24개월	元 入朝	수령궁으로 유력하게 추정 (세자가 알현)
元 入朝(9월 21일-5월 6일)					
神孝寺	23	5월 6일-5월 12일	α(6)	賢聖寺	遂幸
賢聖寺	23	5월 12일-5월 21일	α(9)	僉議府	공주 홍서
僉議府	23	5월 21일-5월 25일	α(4)	金方慶 第	공주 殯所를 위함
金方慶 第	23	5월 25일-?	α	여러 私第	
여러 私第	23	?-9월 27일	α	張舜龍 第	
張舜龍 第	23-24	9월 27일-1월 19일	3개월	德慈宮	
德慈宮	24 (충선왕 즉위)	1월 19일-8월 30일	7개월	明順宮	수령궁에서 복위
明順宮	24	8월 30일-10월 27일	1개월	栢井宮	
栢井宮	24-25 년	10월 27일-8월 9일	9개월	壽寧宮	
壽寧宮	25	8월 9일-9월 28일	1개월	許評 第	2개월
許評 第	25-26	9월 28일-3월 4일	5개월	齊安宮	
齊安宮	26	3월 4일-3월 14일	α(10)	壽寧宮	避病 (국왕 발병)
壽寧宮	26	3월 14일-4월 13일	α	元 入朝	5개월
元 入朝(4월-윤8월)					
齊安宮	26-27	윤8월 13일-3월 2일	α	盧穎秀 第	
盧穎秀 第	27	3월 2일-8월 22일	5개월	壽康宮	避病 (국왕 발병)
壽康宮	27	8월 22일-8월 29일	1개월	張瑄 家	
張瑄 家	27	8월 29일-10월 9일	1개월	齊安宮	
齊安宮	27	10월 9일-10월 20일	α(11)	元 入朝(중도 돌아옴)	
元 入朝(-11월 5일 돌아옴)					
齊安宮	27	11월 5일-11월 25일	α(20)	南京	1개월
南京(11월-12월)					
齊安宮	27-28	12월 17일-6월 4일	5개월	壽康宮	
壽康宮	28	6월 4일-9월 17일	2개월	齊安宮	
齊安宮	28	9월 17일-10월 5일	α	壽康宮	
壽康宮	28	10월 5일-10월 27일	α(22)	齊安宮	
齊安宮	28	10월 27일-12월 1일	1개월	元 入朝	5개월
元 入朝(12월-5월) 제안공 왕숙에게 權署征東省事					
壽寧宮	29	5월 20일-7월 24일	2개월	齊安宮	

齊安宮	29	7월 24일-9월 16일	1개월	元 入朝(중도 돌아옴)	
元 入朝(중도 돌아옴)					
?	29-30	10월 11일-4월	3개월	壽寧宮	齊安宮으로 추정
壽寧宮	30-31	4월-5월 18일	12개월	淑昌院妃 第	
淑昌院妃 第	31	5월 18일-10월 4일	4개월	壽康宮	
壽康宮	31	10월 4일-10월 14일	α(10)	淑昌院妃 第	
淑昌院妃 第	31	10월 14일-11월 12일	α	洪妃 第	
洪妃 第	31	11월 12일-11월 17일	α(5)	元 入朝	18개월
元 入朝(11월-5월)					
淑昌院妃 第	33-34	5월 14일-4월 8일	10개월	金文衍 第	
金文衍 第	34	4월 8일-?	?	神孝寺	避病 (국왕 발병)
神孝寺	34	-7월 13일	?	薨逝	

Abstract

Spatial Reorganization around the Crossroad(十字街) Area during the Goryeo Chungnyeol Era

Oh Youb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reorganization that occurred in the Crossroad(十字街) area during the Goryeo Chungnyeol era, focusing on the extensive reconstruction of Gaegyeong after the devastating Mongol invasions. Following the reconstruction, the main palace (本闕)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ceremonial space, while the Crossroad area emerged as the new central residential space for the Goryeo royal family. As a result, the Crossroad area surpassed its previous status as a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becoming the epicenter of governmental operations within Gaegyeong.

The Mongol invasions led to the decline of the primary residence of the Goryeo royal family, the main palace (本闕). Subsequent financial difficulties, coupled with a weakened central authority, delayed restoration efforts for Gaegyeong. Consequently, the main palace's functions were limited to ceremonial events, and the king's

residence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were relocated to the historically significant Crossroad (十字街) area , which served as a vital commercial hub and transportation nexus in Gaegyeong. Gradually, the main palace's significance as a governing space diminished as it shifted its focus towards ceremonial functions.

During the Goryeo Chungnyeol era, when Gaegyeong reconstruction was in full swing, the main palace's reduced role with its ceremonial functions persisted. The king's primary residence during this time was the Sapan-Palace (沙坂宮), the former residence of King Wonjong. Additionally, the Sunyeong-Palace (壽寧宮) underwent significant reconstruction to accommodate the Great Princess of Qi (齊國大長公主, Jeguk daejang gongju) at the heart of the Crossroad area. Consequently, the central residential space of the Goryeo monarchs solidifi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capital since the Mongol invasions, with the Sunyeong-Palace also assuming a representative role for Goryeo in diplomatic relations.

Upon completion of the Great Hall (大殿) in Sunyeong-Palace, King Chungnyeol officially moved there. The Palace not only became the residence of the imperial princesses but also served as the king's abode, where routine administrative affairs were conducted. As the Palace partially absorbed the functions of the main palace, the Crossroad area gradually replaced it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space within Gaegyeong.

Furthermore, the Residences of Bureaucrats and temples within Gaegyeong played auxiliary roles in the monarch's governance. As the central governing spaces formed outside the main palace (本闕), the residences of the officials became significant auxiliary spaces for the king.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splendid official residences in close proximity to the king's activity area. Additionally, while the

temples in and around Gegyeong retained their original locations, those situ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capital assumed new functions and statuses. The evolution of the capital of Goryeo around the Crossroad area was symbolized by the tower *Yangnu* (涼樓), representing the new center of the city.

As the central residential space of the Goryeo royal family solidified around the Crossroad(十字街) area , major government institutions underwent reorganization. Core government agencies, previously situated in the main palace to cater to the king's needs, experienced extensive rearrangement when the main palace lost its status as the king's primary residence. Key bureaucrats and institutions were relocated to the Crossroad area for the king's convenience. Additionally, the serving (侍奉) and guarding (侍衛)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monarch in governance and protection gradually grew in size. This expansion was inevitable as the king's residence was situated outside the dual walls of the capital and the royal palace.

Kewwords: Gaegyeong, King Chungnyeol, The Crossroad(十字街) Area, the residence of the king(移御), Reorganization of the Capital

***Student number*: 2020-21443**